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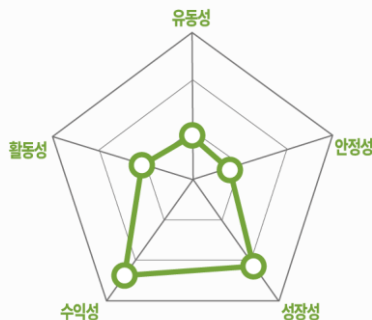
KOSPI | 자본재

대동 (000490)**농기계 제조에서 농업 AI 플랫폼기업으로 도약 기대****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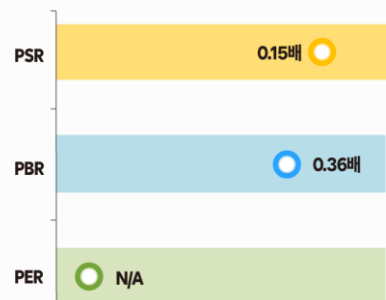
- 당사는 '26년 5월 Vision 2030 계획 및 주주환원 계획을 담은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 당사는 단순 농기계 제조사를 넘어, AI와 로봇틱스를 축으로 미래 농업 플랫폼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
- 기업가치제고 계획(Vision 2030): 1)2030년 연결 매출액 3.59조 원으로 CAGR 19.3% 성장, 2)2030년 PER 10배, PBR 2.0배, ROE 20%, 3)주주환원: FCF 50% 한도 내 당기순이익의 20%까지 점진적 배당 확대(배당성장 20%), 4)IR 확대(C-Level IR, 보고서 발간 등)
- 당사가 발표한 기업가치제고 계획(Vision 2030)은 전통 농기계 제조사를 넘어 '농업 Physical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현주가 수준이 PBR 0.5배로 농기계 압황 부진과 실적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2030년 목표치(PBR 2.0배, ROE 20%)는 향후 당사가 로봇틱스 및 정밀농업 부문의 실질적인 매출 가시화, 분기별 구조적인 실적 변동성 완화, 대규모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동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

체크포인트

- 투자포인트: 1)북미를 넘어 유럽으로, 중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트랙터로 영토 확장, 2)AI와 로봇틱스 기반 미래 농업 플랫폼기업으로 도약 기대, 3)2030 Vision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존디어 사례에서 답을 찾다
- 현주가는 PBR 0.5배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농기계 수요 위축에 따른 단기 성장 정체 우려가 반영, 북미에서 유럽으로 수출 판로 확장에 이어 중소형 위주에서 고부가 중대형 트랙터로 제품 다변화, AI 트랙터·정밀농업·농용로봇·필드로봇 등의 미래 신사업 본격화가 주가의 관전 포인트
- 리스크 요인: 1)북미 트랙터 시장의 성장 둔화, 2)순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 가중

주가 및 주요이벤트**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1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북미에서 유럽으로, 중소형에서 고부가 중대형 트랙터로 영토 확장

동사의 2016~2025 북미 트랙터 수출액은 CAGR 18.8%로 고성장, 미국의 50마력 이하 트랙터 수입액(6.78억 달러) 중 한국산은 3.1억 달러로 45.7% 차지하며 중소형 부문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유럽 매출액은 2016년 266억 원에서 2025년 2,200억 원으로 CAGR 26.5%로 고성장세, 2028년까지 연매출 5,000억 원 달성 목표. 수출지역 다변화와 더불어 중소형 위주에서 신규 출시한 140마력대 대형 AI 트랙터(HX 시리즈)로 제품을 다변화하며 북미 및 유럽 공략 추진

AI와 로보틱스 기반 미래 농업 플랫폼기업으로 도약 기대

단순 농기계 제조기업에서 농업 피지컬 AI 및 자율작업 플랫폼 기업으로 구조적 전환 추진, 대동로보틱스는 지난 7월 GS건설, 포스코그룹, 나우B로부터 시리즈A 투자로 50억 원을 유치하며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에 적용될 AI 필드로봇 사업을 본격화했으며, 8월 레인보우로보틱스와는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애그로이드' 공동 개발 MOU 체결

2030 Vision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기업가치제고 계획으로 Vision 2030 및 주주환원 목표 발표, 2030년까지 AI 농기계, 로보틱스, 스마트팜 등 New Biz 사업 매출비중을 25.9%로 확대, 주주환원 정책으로는 FCF 50% 한도 내 배당성향을 20%까지 점진적 확대, 2030년 ROE 20%, PBR 2.0배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도전적인 목표이나, 존디어의 사례처럼 미래농업 플랫폼기업으로 변화가 본격화되면 도달 가능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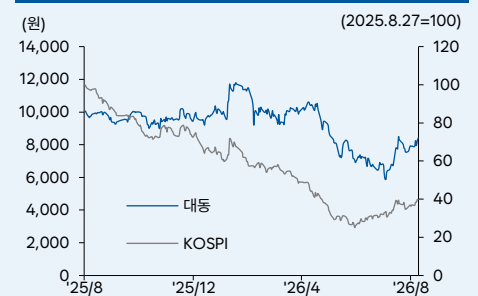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4,637	14,334	14,156	14,847	16,145
YoY(%)	24.1	-2.1	-1.2	4.9	8.7
영업이익(억원)	883	654	185	312	425
OP 마진(%)	6.0	4.6	1.3	2.1	2.6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86	176	-307	-168	138
EPS(원)	1,555	685	-1,176	-640	480
YoY(%)	10.0	-55.9	적전	적지	흑전
PER(배)	8.3	24.8	N/A	N/A	16.9
PSR(배)	0.2	0.3	0.2	0.2	0.1
EV/EBITDA(배)	8.5	12.6	18.7	16.2	13.3
PBR(배)	1.0	1.0	0.6	0.6	0.5
ROE(%)	11.1	4.4	-6.9	-3.7	2.8
배당수익률(%)	0.8	0.6	1.1	1.0	1.2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9/7)	8,130원
52주 최고가	11,800원
52주 최저가	5,890원
KOSPI (9/7)	6,995.39p
자본금	288억원
시가총액	2,344억원
액면가	1,000원
발행주식수	2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7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38억원
외국인지분율	31.0%
주요주주	김준식 외 11인 34.17%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208	-194	-177
상대주가	81	-357	-62.3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시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기업 개요

1 회사 연혁

**국내 1위 농기계 업체로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및
로보틱스 등 신사업까지 확장**

대동은 1947년 진주에서 처음 설립되어 1962년 경운기, 1968년 트랙터, 1977년 이앙기 및 바인더를 잇달아 개발하며 농기계 업체로서 제품군을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197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으며 1984년에는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 대구 공장을 증설하며 사업 규모를 키워나갔다.

그 과정에서 대동기어와 대동금속은 대동의 사내 부서에서 개별 기업으로 분리되며 각자 사업 확대와 기술 확보에 주력하였다. 대동의 치차과(기어 생산 부서)는 대동 초대 회장 김삼만의 동생인 김성민 주도로 1973년 자본금 2억 원 규모의 '대동농기기어(주)'라는 사명으로 별도 기업으로 분사되었다. 다만 무리한 투자로 경영이 부실화되자 1981년 대동공업이 다시 인수했고, 1983년 현재의 '대동기어(주)'로 사명을 변경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동금속은 대동의 주조부(주조 생산 부서)에서 시작해 1987년 미국의 주조 전문 기업인 인터멧(Intermet)과 합작 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합작회사로서 1990년 현대자동차 상용차 전 기종에 해당하는 실린더헤드를 개발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한 이후, 1993년 인터멧과의 합작을 해지하며 대동의 단독 자회사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대동금속(주)'로 사명을 변경하며 현재까지 주물 제품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계열사들의 성장과 함께 대동은 'KIOTI' 브랜드를 앞세워 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이어나갔다. 1982년에 첫 수출을 시작하였고, 1985년에는 미국 현지 농용작업기 업체인 '릴리 카이오티(Lely KIOTI)'와 OEM 사업을 통해 1986년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1993년 미국 현지 법인(Daedong-USA, INC)을 설립하면서 KIOTI 브랜드를 인수하여 공식적인 해외시장용 브랜드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유럽 현지 법인(Daedong Kioti Europe), 2018년 캐나다 현지 법인(DAEDONG-CANADA)을 설립하며 해외 거점을 다변화해 나갔다. 2007년 중국 현지 법인(대동농기남경유한공사) 역시 설립했으나, 시장이 더욱 큰 북미 및 유럽 시장에 집중하고자 점차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한편 대동은 2017년 오너 일가가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유압부품업체 하이드로텍의 지분을 사들여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며 유압기기까지 농기계 밸류체인을 완성시켰다. 이후 완성 농기계 조립 역량을 바탕으로 2018년 현대지게차 OEM 공급을 추진하고 2019년 두산발켓과 OEM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농기계 완제품 판매를 넘어 건설기계 OEM 사업으로 별도 영역을 확장했다.

최근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로봇·AI 분야로도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2023년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주) 대동-KIRO 로보틱스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2024년 10월에는 대동로보틱스를 설립해 운반로봇 RT100 등을 자체 제작하고 납품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기존 농기계·부품 중심의 Legacy Biz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마트 팜, 스마트모빌리티, AI농기계 등 New Biz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혁

1947 ~ 1997	2000 ~ 2022	2023 ~
1947.05 주식회사 대동공업사 설립(전주) 1962.02 동력경운기 제작 1968.10 농용트랙터 제작 1975.06 기업공개(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977.04 이앙기 및 바인더 제작 1977.10 소형트랙터 제작 1982.04 콤바인 제작(일본 구보타사와 기술제휴) 1984.05 대규모 준공(대구 달성) 1987.12 대동금속(주) 설립 1991.01 공장품질관리 1등급 획득 1993.11 일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1993.12 미국현지법인 설립(Daedong-USA, INC)	2007.07 중국현지법인설립(대동농기농경유한공사) 2008.12 일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0.01 중국현지법인설립(대동농기안전유한공사) 2010.02 유럽현지법인설립(Daedong Kioti Europe) 2013.12 (주)제주대동 설립 2017.12 하이드로텍(주) 기업인수 2018.01 현대지게차 OEM 공급 추진 2018.11 캐나다현지법인설립(DAEDONG-CANADA) 2019.02 두산발켓 OEM 공급 계약 2019.03 현대건설기계와 스키드러더 협력사업 계약 2021.03 회사의 상호 변경(주식회사 대동) 2021.12 국내 최초 수출 트랙터 단일모델 누적 생산량 5만대 돌파(CK시리즈) 2022.03 BSS형 전기이륜차 시장 진출	2023.01 로봇사업 진출 위한 (주)대동-KIRO 로봇텍스센터 개소 2023.09 자율작업 농기계 업계 최초 자율주행 국가 시험 통과 2023.12 6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23.12 튀르키예 아랄(Aral) 그루 트랙터 공급 계약 2024.09 GX 트랙터,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선정 2024.10 2024 북미 딜러스 초이스 어워드 수상 2024.11 농기계 커넥티드 서비스 업계 최초 해외 런칭 2024.11 우크라이나 출판사와 트랙터 광역출판 계약 체결 2024.12 AI 가정용 재배기, CES 2025 혁신상 첫 수상 2025.06 북미 최초 25마력 캐빈형 트랙터 'CS2530' 출시 2025.08 업계 최초 수확량 확인 및 자율작업 기능 콤바인 출시 2026.01 자율주행 운반로봇 콤바인 신기술 농업기계 인증 획득 2026.04 국내 최초 AI 트랙터 HX 출시 2026.05 농림부 '국가 농업AX플랫폼' 대표기업 선정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 2026.06 농업용 멀티 플랫폼 로봇 RMRP-100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자료: 대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 영역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트랙터
라인업이 주력 기종, 수출비중
68%

(1) 농기계(대동)

대동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이 세 기종은 논밭을 갈아 파종 환경을 조성하는 트랙터(경작) → 모를 심는 이앙기(파종) → 다 자란 벼를 베고 탈곡하는 콤바인(수확)으로 이어지는 벼농사 전 과정에서 각기 다른 단계를 담당한다. 그 중에서도 경작과 파종을 하는 상반기에 높은 매출이 발생하며 상고하저를 이루는 계절성이 존재한다. 1H26 기준 농기계 매출은 7,254억 원(YoY +4.6%)으로 전체 매출의 85.9%를 차지했다.

대동의 농기계 매출은 내수보다 해외 비중이 훨씬 높다. 미국 현지 브랜드인 Kioti를 인수해 북미 시장을 공략해온 수출 중심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1H26 기준 내수가 32%, 해외가 68%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54%, 유럽이 10%를 차지하며 두 지역이 해외 매출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럽 매출은 동 기간 832억 원(YoY +108%)의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농기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트랙터이다. 트랙터의 단위는 마력(馬力)으로 단위 시간 당 수행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며, 힘의 단위가 아닌 일의 속도를 의미한다. 대동은 25마력의 소형 트랙터부터 142마력의 중대형 트랙터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그중 60마력대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다. 2026년에는 국내 최초로 142마력의 HX 시리즈 AI 트랙터를 출시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해당 모델은 자율주행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대동의 품목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농기계 외에도 대동금속이 생산하는 주물 제품은 1H26 기준 전체 매출에서 12.9%, 하이드로텍이 생산하는 유압기기 등 기타 제품은 동기간 1.2%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동 트랙터 분류

크기(마력)	제품명	용도/수요처					
		밭작물	축산	대형 수도작	수도작(논)	하우스	과수원
대형(100-142)	HX 시리즈						
중형 (45-74)	GX 시리즈						
	RX 시리즈						
	NX 시리즈						
중소형 (35-38)	DK 시리즈						
	LK3605VU						
	LK4005VU						
소형(25)	LK280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의 매출원가율은 1H26 기준 75%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동력 전달 부품과 주물 소재, 유압기기는 계열사인 대동기어, 대동금속, 그리고 하이드로텍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2) 부품(대동기어, 2Q26 기준 지분율 44.74%)

대동기어는 농기계, 자동차, 로봇 등에 탑재되는 P/T(Power Train)와 개별 부품을 생산한다. P/T란 엔진이나 모터 같은 동력원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이다. 1994년 자동차 변속기 기어류와 1995년 산업기계용 감속장치를 개발하면서 기존 농기계용 부품에서 자동차 및 산업용 장치로 확장하며 현대트랜시스, 현대차 등에 납품 중에 있다. 현재는 감속기 등 모빌리티용 장치를 생산하며 로봇 사업에도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40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8월에 진행했다. 이 중 330억 원은 시설자금으로, 이외 약 73억 원은 운영자금 및 로봇용 부품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동은 대동기어의 신규 발행주식의 약 60%를 인수하며 지분율은 7-8월의 증자 이후 37.74%로 소폭 감소하였다.

대동기어의 1H26 매출액은 1,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농기계용 부품 매출은 감소했으나, 자동차 부품 매출액이 550억 원(YoY +15.7%)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은 5.5% 증가했다. 다만 신규라인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2억 원(YoY -72.7%)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액의 48.2%가 대동에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수출 비중 32.4%의 내수 위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주물(대동금속, 2Q26 기준 지분율 55.11%)

농기계는 엔진을 통해 움직이게 되는데, 엔진을 구성하는 실린더헤드와 실린더블록 등은 그 내부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용접하거나 깎아내는 방식보다는 쇳물을 녹여 원하는 형상의 틀에 부어 굳히는 주조 공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주조 기술은 농기계용 엔진뿐 아니라 자동차용 엔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농기계에 필요한 실린더헤드 등을 생산하는 한편 1990년대부터는 현대차에도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후 볼보그룹코리아 등 건설기계 업체와 일본 농기계 및 산업기계 업체로도 납품하며 거래처를 다각화했다.

대동금속의 1H26 매출액은 5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다. 대동, 구보다 등에 납품하는 농기계 부품의 매출은 1H26 기준 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했으나, 전체 매출에서 77%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기타 부품의 매출이 22.2% 감소하면서 탑라인 하락을 견인했다. 친환경 및 전동화에 따라 엔진 부품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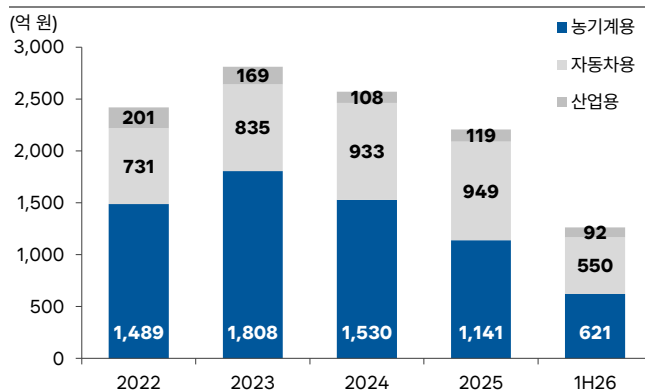
재료비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1H26 기준 -25억 원(YoY 적자확대)을 기록했다. 1H26 기준 내수 비중 94.3%, 해외 비중은 5.7%이다.

(4) 유압기기(하이드로텍, 2Q26 기준 지분율 100%)

하이드로텍의 1H26 매출액은 112억 원(YoY +3.8%), 영업이익 0.96억 원(YoY 흑전)을 기록하며 대동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 구조를 보인다. 농기계가 단순히 굴러가는 것 외에도 무거운 짐을 퍼올리는 등 큰 힘을 순간적으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서는 오일의 압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유압 방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동은 이러한 유압 기술을 보유한 하이드로텍을 인수해 직접 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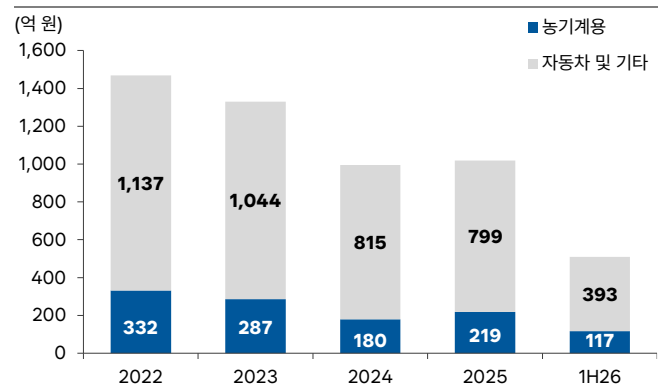
다만 대동금속에서 2026년 8월 12일 약 90억 원 규모의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새로 발행하는 3,000,000주는 대동이 전부 인수했고, 신주 상장은 9월 17일로 계획되어 있다. 해당 자금을 통해 8월 27일 기준 대동금속의 하이드로텍 지분율은 94.7%, 대동의 대동금속 지분율은 70.16%까지 확대되었다.

대동기어 매출액 추이



자료: 대동기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금속 매출액 추이



자료: 대동금속,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5) 로봇&모빌리티(대동모빌리티, 2Q26 기준 지분율 42.81%)

대동모빌리티는 산업용체인 사업으로 시작해 소형 트랙터, 가드닝 장비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후 골프카트와 전기스쿠터 등 모빌리티 제품으로 영역을 넓혀왔다. 2024년에는 자회사 대동로보틱스를 설립하며 로봇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체인 사업부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나 승강 장치, 공장 설비 등에 사용되는 체인을 제작하며, 가드닝 사업부에서는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소형 트랙터를 제작하여 대동의 해외 법인과 대리점 등을 활용하여 판매하고 있다. 모빌리티 사업부에서는 E-스쿠터, LSV(Low Speed Vehicle, 소형 다목적 차량)에 더해 RT100과 같은 운반 로봇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대동모빌리티의 1H26 매출액 1,159억 원(YoY -10.5%), 영업이익 -33억 원(YoY 적자확대)을, 매출 비중은 가드닝이 80.2%, 모빌리티 10.4%, 체인 9.4%를 기록했다. 모빌리티 사업부의 매출은 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데 반해,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가드닝과 체인 사업부의 매출 부진에 영향을 주었으며, 매출감소와 원가 인상에 따라 영업이익 역시 -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적자가 확대되었다.

대동은 2026년 8월 25-26일 이틀에 걸쳐 대동모빌리티 주식 2,925,003주를 약 568억 원에 추가 취득할 것을 발표
했다. 2022년 프리PO 조건이었던 2026년까지의 상장 미이행으로 대동의 매도청구권 행사분(229억 원)과 투자자의
풋옵션 행사 대응분(339억 원)이 합쳐진 결과다. 취득 완료 예정일인 10월 26일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동의 지분율은
39.16%에서 58.77%로 늘어나며, 이를 통해 대동의 실질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어 대동이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에
맞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종속회사 현황

(단위: 억 원)

기업명	주요 영업활동(소재지)	지분율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총계
		(2Q26 말)	2025	1H26	2025	1H26	2Q26 말
대동기어	기어 등 제품제조업(대한민국)	44.74%	2,209	1,264	2	2	2,695
대동금속	주물 제품제조업(대한민국)	52.78%	1,018	510	1	-25	988
DAEDONG KIOTI EUROPE	농기계판매업(네덜란드)	100.00%	1,143	742	3	-48	1,571
DAEDONG-USA, INC ¹	농기계판매업(미국)	100.00%	7,583	3,859	376	462	7,720
대동모빌리티 ²	체인및농업기자재제조판매업, 자율 로봇 기술, 개발업 등(대한민국)	42.81%	2,468	1,159	-72	-33	3,189
하이드로텍	부품제조업(대한민국)	100.00%	215	112	2	1	254
제주대동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대한민국)	100.00%	76	42	-44	-17	3,243
대동에그테크 ³	정보통신업(대한민국)	66.79%	309	132	11	-8	277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1) DAEDONG-CANADA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임, 2) 대동로보틱스가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임, 3) 대동에이아이랩 및 대동팜이 포함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임.

대동 계열사 현황(2Q26 기준)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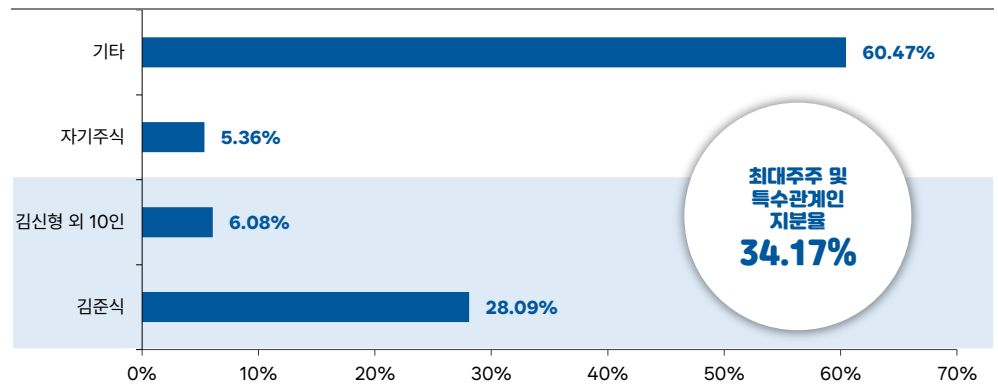
주주 현황

1대 주주

김준식 대표이사 28.09%

대동의 1대 주주는 김준식 대표이사로, 2026년 2분기 기준 28.09%를 보유하고 있다. 김준식 대표이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대동 및 대동금속, 대동기어, 대동모빌리티 등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대동 그룹사는 설립 이후 3대째 아들이 가업을 잇고 있는 구조로, 현재는 김준식 대표의 장남인 김신형 군이 357%로 두번째로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동의 자사주는 1,545,964주로 전체 주식 수에서 5.36%를 차지하나, 이중 1,350,621주는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주주현황(2Q26)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국내 농기계 시장 동향

국내 농기계 시장은 대동, TYM, LS엠트론 3사 과점체제, 농기계 내수시장 규모는 2.9조 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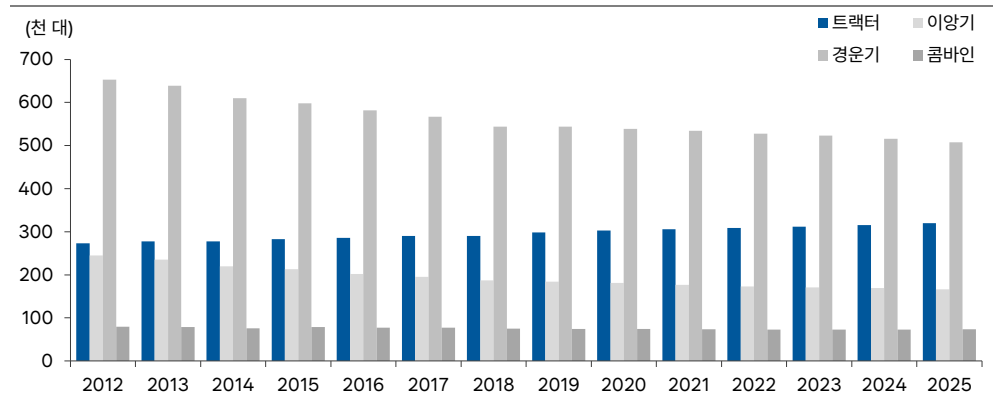
국내 농기계 시장은 기존에는 대동, TYM, 국제종합기계, LS엠트론 등 4사 체제였으나, 2022년 7월 TYM이 국제종합기계를 합병하면서 3사 과점체제로 전환되었다. 2025년 기준 업체별 농기계 부문 매출액을 보면 대동이 1.48조 원으로 압도적 1위업체이며, TYM(8,493억 원)과 LS엠트론(5,658억 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국내 농기계 시장규모는 2021년 2.3조 원대로 추정되었으나, 2025년 기준으로는 2.5~2.8조 원 규모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시장 규모 증가는 Q(수량)의 증가보다는 가격상승(P)에 따른 결과로 구조적으로는 국내 농기계 수요는 정체 내지 둔화 국면이 지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농기계 3사의 지난 5개년간 연평균 매출성장률을 보면 대동은 국내 1위이자, 복미 중소형 트랙터 3위업체로 부상하며 5.9%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TYM은 CAGR 1.4%, LS엠트론은 CAGR 0.7%로 저성장 국면이 뚜렷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배포한 '2025년도 농업기계 보유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총 198만 3천 대로 전년대비 0.2% 증가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농 규모의 대형화와 공동화 영향으로 트랙터 보유대수는 32만 대로 전년대비 1.2% 증가하였으나, 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경운기(50.8만 대), 이앙기(16.6만 대)는 전년대비 각각 -1.9%, -2.9% 감소했다. 반면, 발농사 기계화 확산에 따라 수확·파종·정식기 및 관리기 보유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농기계 보유대수 추이



자료: 농축산부, 한국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H26 농기계 정부 용자취급 판매실적은 총 1.2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6% 감소, 트랙터 판매비중이 전체의 69%로 절대적

2026년 상반기 들어서도 국내 농기계 수요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발표하는 '정부지원 농기계 용자취급 판매실적'은 국내 농기계 내수 수요와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신뢰도 높은 지표이다. 이는 국내 주력 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은 해당 단가가 수천만 원에서 억 원대에 달할 만큼 고가이다 보니, 농민들의 정부 용자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사실상 내수시장의 수요 증감률을 그대로 반영한다.

2026년 상반기 농기계 정부 용자취급 판매실적은 총 12,002대(3,595억 원)로 전년동기대비 물량 기준으로는 6% 감소했으나, 가격 인상 영향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기계 판매 중 트랙터 비중은

69%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종별 판매대수로 보면 전년대비 트랙터(7,521대), 이앙기(2,534대), 스피드스프레이어(779대), 무인항공방제기(152대) 등 대부분의 기종에서 판매 부진이 지속되었다.

전체 농기계에서 트랙터, 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 콤바인 등 4개 기종의 전체 비중은 94.7%를 차지하여 국내 농기계 시장이 소수 핵심기종에 편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을 분석해보면 국내 농기계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수준을 상당 부분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로 물량 기준으로는 대부분 감소해 시장의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랙터 한 기종이 전체 농기계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앙기의 경우에는 국내 논농사 재배면적 감소와 쌀 소비 급감,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정부의 전략 작물 확대 등 발농사를 지원하는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복합적으로 수요가 구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H26 국내 농기계 용자취급 판매실적

(단위: 대, 억 원)

	1H25 수량	1H25 금액	1H26 수량	1H26 금액	수량 YoY	금액 YoY
트랙터	7,873	2,525	7,521	2,492	-4.5%	-1.3%
이앙기	2,788	497	2,534	458	-9.1%	-7.9%
스피드스프레이어	802	267	779	271	-2.9%	1.4%
콤바인	132	147	162	184	22.7%	25.0%
무인항공방제기	178	53	152	46	-14.6%	-12.8%
농용 고소작업차	246	47	236	46	-4.1%	-2.4%
동력제초기	203	30	182	29	-10.3%	-4.1%
기타	534	81	436	69	-18.4%	-15.1%
합계	12,756	3,648	12,002	3,595	-5.9%	-1.4%

자료: 농협중앙회 자체부 농기계팀,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농기계 내수시장은 농지 재배면적 감소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영향으로 구조적 정체 국면이며, 수출비중이 70% 이상으로 상승

국내 내수 농기계 수요는 농지 재배면적 감소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따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세인 가운데, 국내 농기계업체들은 주력 기종인 트랙터를 위주로 수출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 부문 최대 업체인 동사의 수출비중을 보면 10년 전인 2016년 47%에서 2025년 기준 77%로 상승하였으며, 경쟁사인 TYM의 경우에도 2016년 수출비중은 49.1%였으나, 2025년 기준 73.8%로 상승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매출액 기준 국내 3위권 업체인 LS엠트론의 2025년 기계사업(트랙터 부문 포함) 수출비중은 68.1%를 기록했으나, 트랙터 사업으로만 보면 70%를 훨씬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농기계 수출액 13.67억 달러로 12.2% 증가, 북미 수출이 75%, 트랙터 비중이 68%로 절대적 비중 차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25년 농기계 수출액은 13.67억 달러로 전년대비 12.2% 증가했으나,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북미향 ‘Hobby Farm’ 특수로 호황을 보였던 2021~2023년 수출액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국내 농기계 수출이 2022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세를 보인 배경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하비 파머(Hobby Farmer)들의 중소형 트랙터 특수에 따른 역기저효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할부 금융 위축, 북미 딜러망의 재고 과잉 및 재고 소진 장기화, 2022년 러우전쟁 이후 글로벌 곡물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프로모션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수요 둔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대 수출지역인 미국 트럼프정부의 관세 부과 이슈도 수요 위축요인이다. 한미 FTA에 따라 2025년 이전에는 대미 농기계 수출이 무관세를 적용 받았으나, 미국 상무부는 2025년 8월 1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높 파생상품에 50% 고율 관세를 적용하였으며, 풍력터빈/굴삭기 등 중장비와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부품 등도 이에 포함되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으며, 2026년 6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으로 관세율이 15%로 하향되었다.

2025년 농기계 수출액 중 트랙터 비중은 68.1%를 차지해 절대적으로 트랙터 한 기종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었다.

전체 수출액을 수출국별로 구분해 보면, 북미 수출액은 10.26억 달러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북미 수출비중은 7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북미에 이어 유럽 수출액은 1.71억 달러로 전년대비 19.4% 증가해 수출비중은 12%를 차지해 북미와 유럽 합산 수출비중은 87%에 달했다. 그 외에 아시아 수출비중은 7%, 대양주 3%, 중남미와 아프리카 수출비중이 각각 1%를 차지하였다.

2025년 국내 트랙터 기종별 수출비중을 보면 25~50마력이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50~100마력이 29%, 25마력 이하 트랙터가 15%, 100~175마력이 5%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100마력 이하 기종 위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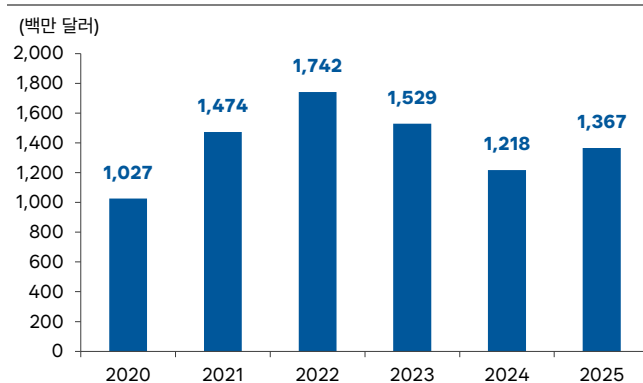
**2025년 국내 트랙터 수입액은
1.39억 달러 규모,
100~175마력 중대형 비중이
43%로 최대 비중 차지**

국내 트랙터 수입통계를 보면 2023년 2.03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1.14억 달러로 감소한 데 이어, 2025년에는 1.39억 달러로 전년대비 22.1% 증가하였다. 트랙터 기종(사이즈)별 수입비중을 보면 100~175마력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0~100마력은 37%, 25~50마력은 6%, 25마력 이하 트랙터는 1%를 차지하여 국내 트랙터 수출비중은 100마력 이하의 중소형 기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수입비중은 100마력 이상의 중대형 비중이 56%로 과반을 상회하였다. 트랙터 수입국별 비중은 독일산 38.4%, 일본산 32.8%, 영국산 16.5%, 프랑스산 9.7%, 기타 2.7%를 차지하였다.

독일산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원인은 국내 대형 농가 및 축산농가에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존디어(John Deere) 중대형 모델이 독일 만하임 공장에서 직수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독일 브랜드로 펜트(Fendt), 클라스(CLAAS), 도이츠파(Deutz-Fahr) 등의 물량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존디어 물량이 절대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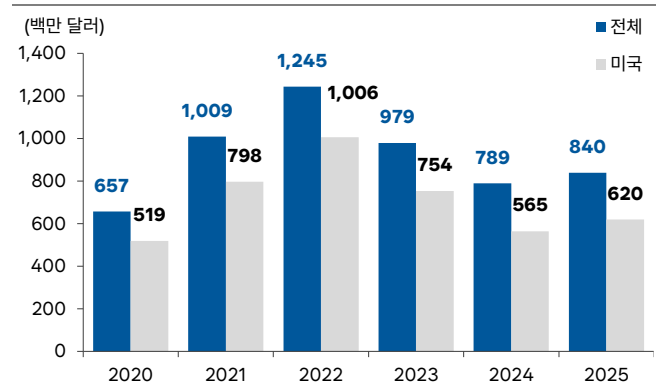
독일산에 이어 일본산은 주로 일본 1위 브랜드인 구보타(KUBOTA)와 안바(YANMAR) 물량으로 추정되며, 일부로는 이세키(ISEKI) 물량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산 물량은 주로 CNH 계열 뉴홀랜드(New Holland) 중대형 모델이 영국에서 생산되어 국내 LS엠트론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산 물량은 AGCO그룹의 매시 퍼거슨(Massey Ferguson), CLAAS(르망 공장) 물량으로 추정된다.

국내 농기계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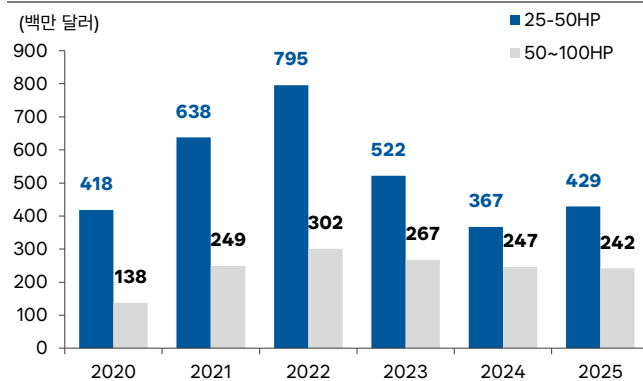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트랙터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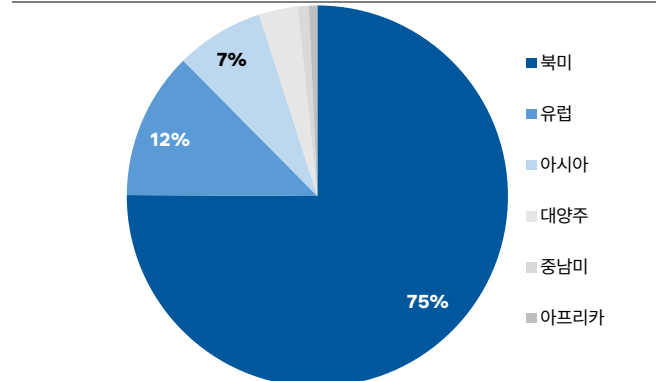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주력 트랙터 기종(25~50마력, 50~100마력)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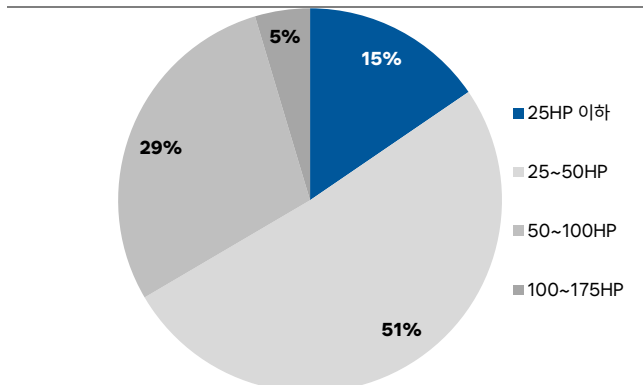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농기계 지역별 수출비중(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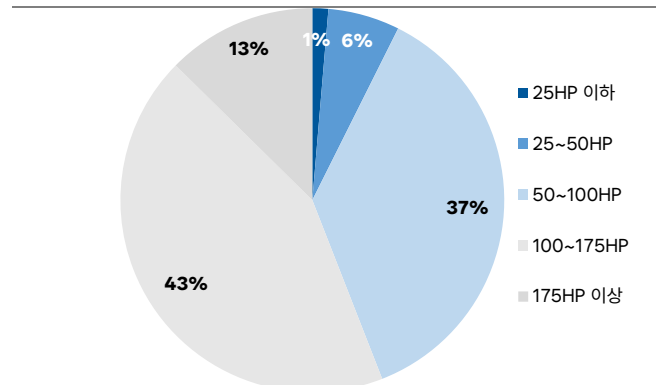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트랙터 기종별 수출비중(2025)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트랙터 기종별 수입비중(2025)



자료: 관세청,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글로벌 농기계 시장 동향

글로벌 농기계 시장규모는 2025년 기준 1,869억 달러(265조 원)에서 2035년 3,509억 달러로 연평균 6.5% 성장 전망

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농기계 시장은 2025년 1,869억 달러(265조 원)에서 2035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하여 3,50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아태지역은 글로벌 최대시장으로 2025년 1,125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할 전망이며, 2035년까지 연평균 6.8% 성장해 글로벌 평균 성장률을 상회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과 인도 정부의 농업현대화 정책과 기계화율 상승이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미국은 북미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2025년 206억 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11.0%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미지역은 대형 농가 중심의 고성능/자동화 트랙터 교체 수요 및 정밀농업(Precision Ag) 솔루션 채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주요 농기계 기업으로는 존디어, 구보타, CNH, AGCO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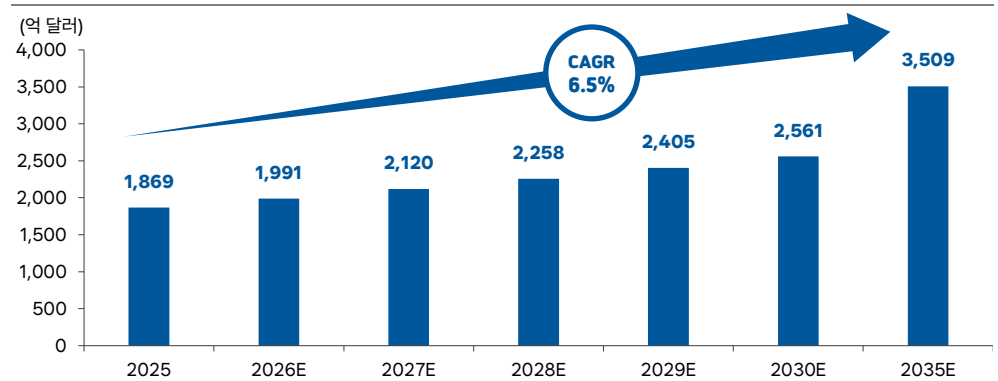
글로벌 농기계 시장 주요 업체로는 John Deere, KUBOTA, CNH Industrial, AGCO 등이 대표적이다.

농업용 트랙터는 전체 농기계 시장의 약 41%를 차지하는 핵심 기종으로 2025년 기준 트랙터 매출액은 약 50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5년까지 785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주력 판로인 북미 시장은 고금리 기조, 곡물가격 약세와 농가 소득 감소, 달러 재고조정, 관세 부담 등으로 2024~2025년 농가 구매심리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정밀농업(Precision Ag) 전환, 자율주행 및 텔레메틱스 시스템 도입 가속화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북미시장은

50~100마력 이하 소형/컴팩트 시장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따라 정원 관리, 소규모 축산농가, 주택관리 목적의 소비자가 주요 고객이며, 1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의 경우 미국 중서부 지역의 대규모 곡물지대 중심 고성능 스마트 트랙터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 규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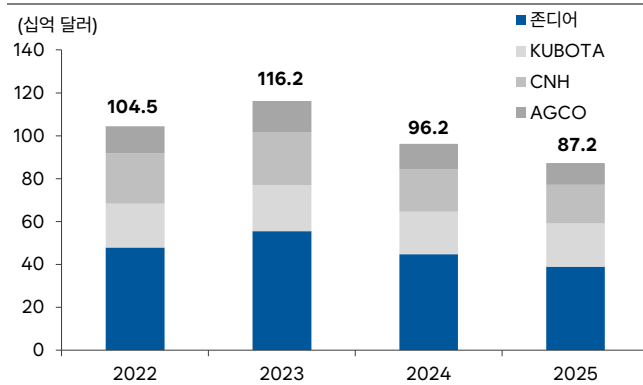
자료: Global Market Insigh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농기계 주요 4개사 합산 매출액은 2023년 이후 감소세

글로벌 농기계 주요 4개사(존디어, 구보타, CNH, AGCO)의 달러 환산 기준 합산 매출액 규모는 2023년 1,162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62억 달러로 17.2% 감소한데 이어 2025년에는 872억 달러로 전년대비 9.3% 감소했다. 업체별로 보면 글로벌 최대업체인 존디어의 매출액(Equipment, 금융 매출 제외)은 2025년 3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3.1%나 감소하였으며, 일본 구보타(KUBOTA)는 202억 달러(3.0조 엔)로 0.1% 증가하는데 그치며 정체 국면을 보였다. CNH의 매출액은 181억 달러로 전년대비 8.8% 감소하였으며, AGCO의 경우에도 101억 달러로 13.6% 감소하여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의 매출액이 역성장하거나, 정체 국면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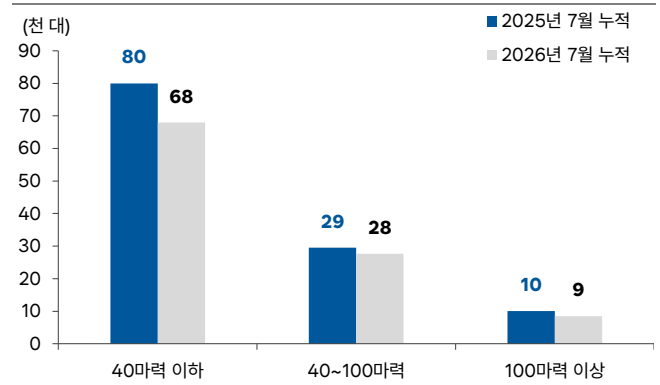
미국의 농기계 월간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AEM(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2026년 7월 누적 2WD 농업용(Farm) 트랙터 판매대수는 10.4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종별로 보면 40마력 이하 트랙터 판매대수는 6.8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5.0% 감소했으며, 40~100마력 트랙터 판매대수는 2.8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6.3% 감소하였다. 100마력 이상 트랙터의 경우에는 8,513대를 판매하여 전년동기대비 15.5% 감소하는 등 전 기종에서 수요 위축 국면이 이어졌다.

글로벌 농기계 주요 4개사 합산 매출액 추이



자료: 업체별 실적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미주지역 트랙터 기종별 판매



자료: AEM(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북미 대형 트랙터 시장은 존디어, CNH, AGCO 등 3사 과점시장, 중소형 시장은 구보다, 존디어에 이어 국내 3사가 3~5위권 다크호스로 부상

국내 농기계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은 100마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 시장에서는 존디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CNH와 AGCO 등 3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며 과점체제이다. 그러나, 10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는 시장 구도가 완전히 다르다. 일본 구보다(KUBOTA)가 북미시장의 40~50%를 장악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존디어가 20~30%로 2위, 그리고 국내업체인 대동(KIOTI)과 TYM이 시장 점유율 8~10%로 3~4위, LS엠트론은 M/S 4~5%로 추정되어 인도 마힌드라와 업계 5~6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다.

국내업체들이 북미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존디어, 구보다, 마힌드라 등 메이저 기업들의 북미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미 경쟁사들의 북미 트랙터 판매실적과 매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에는 국내 업체들의 북미 침투율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도 주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존디어의 매출액을 보면 2023년 556억 달러에서 2024년 448억 달러로 19.4%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3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3.1% 감소하였다. 존디어의 북미 트랙터 판매량은 2021년 35만 대에서 4년 연속 감소해 2025년에는 22.2만 대로 2021년 대비 36.5%나 감소했다.

특히 최대 판매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기종인 40마력 이하 트랙터 판매대수는 2021년 23.7만 대에서 2025년 13.9만 대로 2021년 대비 41.3%나 감소해 국내 업체들과 경쟁하는 모델에서 특히 감소폭이 컸다.

2021년 모든 기종에서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에 따른 Hobby Farm 특수로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이래 현재까지 4년 여간 엔데믹에 따른 역기지 효과에 이어 고금리와 곡물가격 하락, 국내 업체들의 M/S 상승 등이 겹치면서, 존디어의 현재 판매대수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20년 이전 수준을 전 기종에서 미치지 못할 정도로 판매가 감소한 상황이다.

북미 중소형 시장에서 M/S 1위(40~50%)인 구보다의 미주 매출은 최근 3개년 1.2조 엔으로 정체 국면이며, 2025년에는 1조 1,960억 엔으로 4.6% 감소하였다. 구보다의 연도별 북미 매출액 추이를 보면 존디어가 최대 판매를 보였던 2021년 북미시장 매출액은 8,198억 엔이었으나, 이후 2024년 1조 2,536억 엔까지 3년 연속 연평균(CAGR) 15.2%로 증가하면서 100마력 이하 트랙터 기종에서 존디어의 M/S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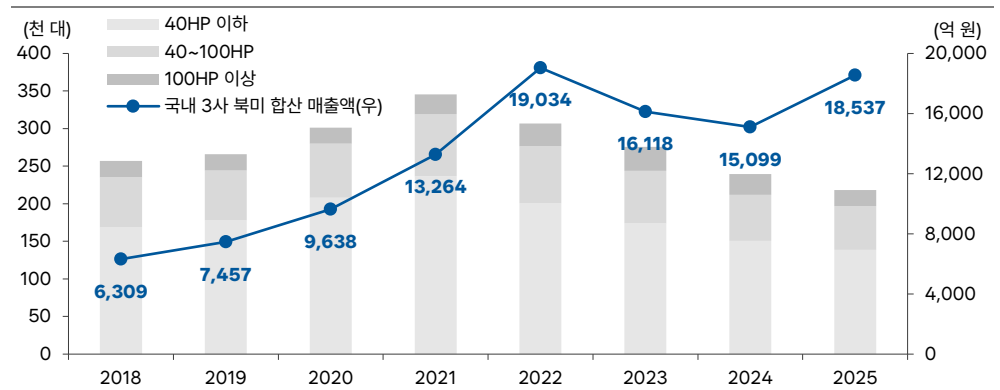
한편, 북미 10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과거 구보다, 존디어에 이어 업계 3~5위권을 형성하던 인도기업인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도 최근에는 국내 대동과 TYM과 3~5위권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도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힌드라 미국법인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는 3.4억 달러로 국내 대동과 TYM의 매출 규모보다 컸으나,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국내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집중 공략하면서 국내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2025년 기준 마힌드라 USA 매출액은 약 2.8억 달러 수준으로 대동(8,647억 원), TYM(6,007억 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외형이 대폭 감소했다.

북미 경쟁사들의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국내 3사 북미 합산 매출액은 2025년 1.9조 원에 육박하며 2022년 호황 국면에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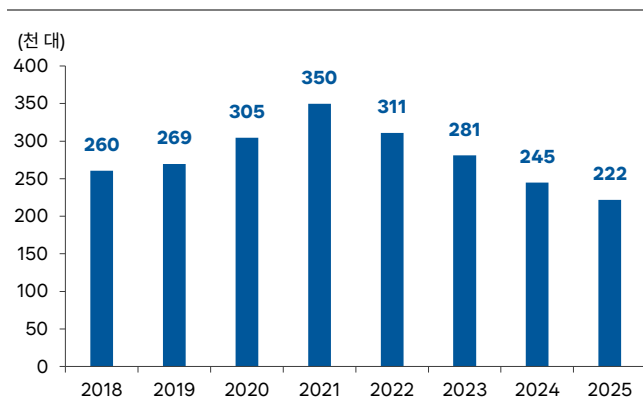
북미에서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국내 농기계 3사인 대동(KIOTI), TYM, LS엠트론은 북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로를 확장하면서 기존 현지업체들의 M/S를 잠식하고 있다. 국내 농기계 3사의 북미 합산 매출액을 보면 2018년 6,309억 원에서 2022년 코로나 특수로 1.9조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후로는 2년 연속 감소해 2024년 1.5조 원 수준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 합산 매출액은 1조 8,537억 원으로 전년대비 22.8%나 증가하며 2022년 호황 당시 수준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선전했다. 2025년 존디어와 구보다의 북미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동기간 국내업체들은 대동 14.9%, TYM 35.7%, LS엠트론(북미법인) 23.3% 급증하며, 북미 100마력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M/S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존디어 트랙터 판매 vs 국내 3사 북미 합산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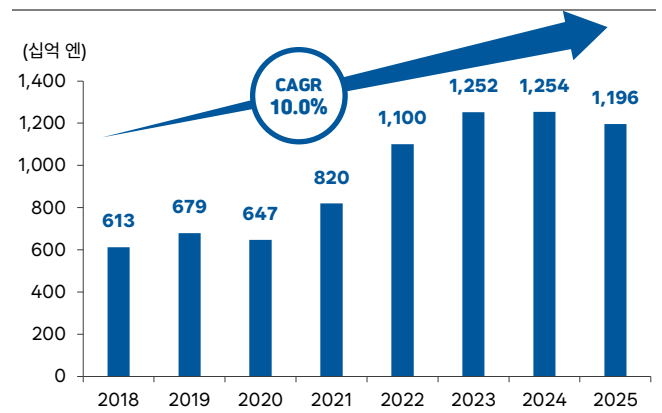
자료: 업체별 사업보고서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존디어 북미 트랙터 판매대수 추이



자료: 존디어,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구보다 북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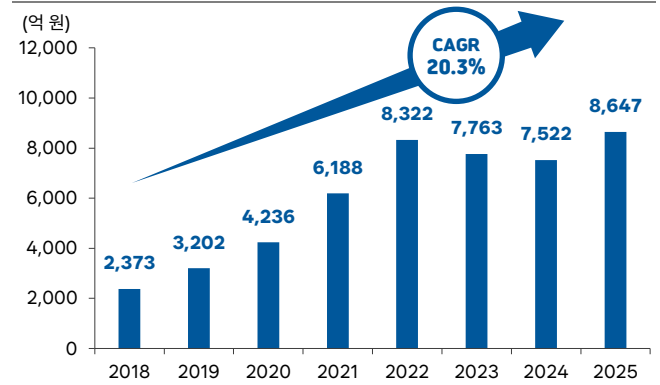
자료: KUBOTA,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인도 마힌드라 복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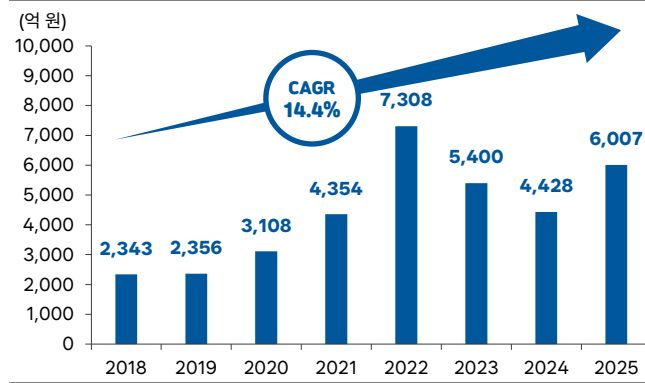
자료: 마힌드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 복미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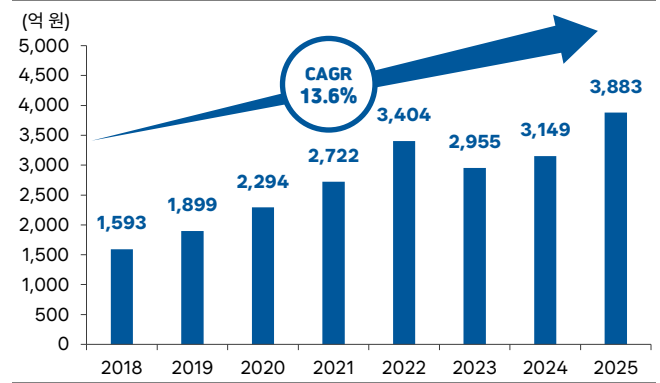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TYM 복미 매출액 추이



자료: TYM,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LS엠트론 복미법인 매출액 추이



자료: LS엠트론,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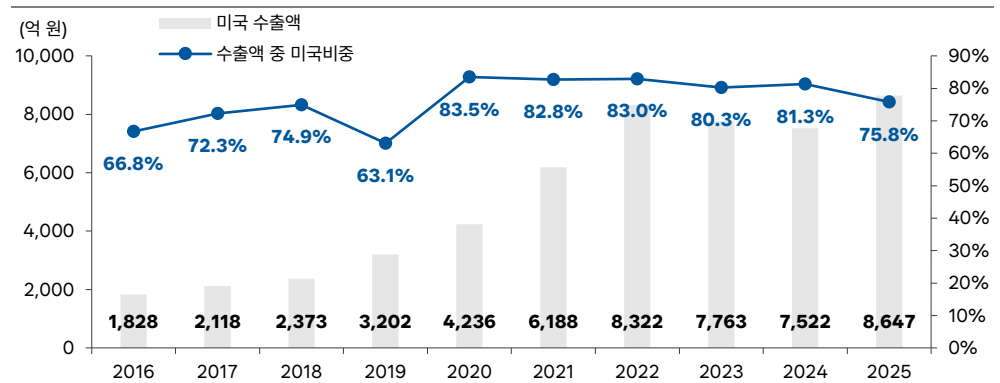
투자포인트

1 북미를 넘어 유럽으로, 중 소형 위주에서 중대형 라인업으로 영토 확장

동사의 2016~2025 북미 트랙터
수출액은 CAGR 18.8%로 고성장

동사는 주력 수출 시장인 북미에서 100마력 이하 트랙터 브랜드 3위(M/S 8.7%)의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북미 딜러 수는 2025년말 570개소에서 2026년 상반기에 딜러사를 30개소 확보하면서 전체 딜러망을 600개소까지 확대하였다. 미국 매출액은 2016년 1,828억 원에서 2025년 8,647억 원으로 연평균 18.8% 급성장하며 연결 외형 성장을 주도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고금리와 곡물가 하락에 따른 농가 수요 감소, 코로나 팬데믹 특수 소멸에 따른 역기지 효과, 트럼프 2기정부의 관세 리스크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북미 이외 수출 다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대동 북미 수출액 추이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미국의 50마력 이하 트랙터
수입액(6.78억 달러) 중 한국산은
3.1억 달러로 45.7% 차지하며
중 소형 부문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

미국 국제무역위(USITC) 수입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트랙터 기종별 합산 수입액은 2022년 71.7억 달러를 정점으로 2023년 65.2억 달러, 2024년 50.5억 달러, 2025년 33.5억 달러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Hobby Farm' 반짝 특수 이후로는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2025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3.7%나 급감하며,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2025년 한국산 트랙터 수입액은 5.44억 달러로 전년대비 1.8% 감소에 그쳐, 전체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16.3%로 전년(11.0%)대비 5.3%p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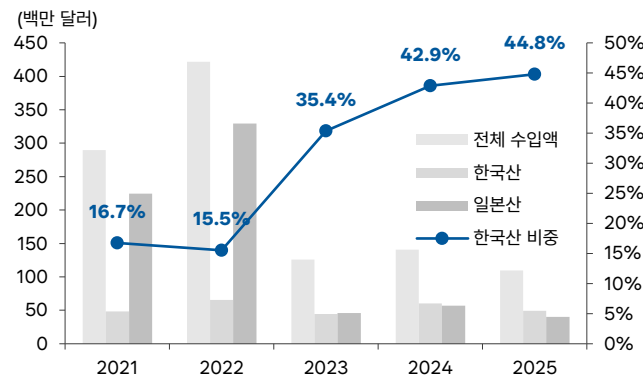
특히, 트랙터 사이즈별 기종으로 보면 미국의 50마력 이하 트랙터 수입액(6.78억 달러) 중 한국산 수입액은 3.1억 달러로 한국산이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45.7%로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며 일본산 수입(2.69억 달러, 수입비중 39.7%)을 넘어섰다. 다만, 50~100마력 트랙터 세그먼트에서는 일본산이 37%, 한국산 26%, 튀르키예산 12%, 멕시코산 9%, 인도산 8%, 기타 8%로 한국산이 일본에 이어 2위 수입국을 차지했으며, 일본과 한국 합산 수입비중이 63%로 국내 업체들은 50마력 이상 기종에서도 점차 판매를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100~175마력대 트랙터 수입에서 특이한 점은 독일산이 48.8%로 수입산 1위라는 점이다. 이는 독일 브랜드의 물량 보다는 존디어의 미국 외 최대 생산거점인 독일 만하임 공장 물량으로 사실상은 존디어 물량이 자국으로 역수출되는 것이다. 독일산에 이어 일본산이 수입비중 11.6%, 멕시코산 10.6%, 인도산 9.4%, 영국산 5.5% 등으로 1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 시장에서는 5개국 수입비중이 86%에 달하며, 국내산 수입비중은 1.6% 수준에 그쳤다.

175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 수입에서도 존디어의 독일 공장 생산 물량으로 추정되는 독일산이 50.5%로 과반 이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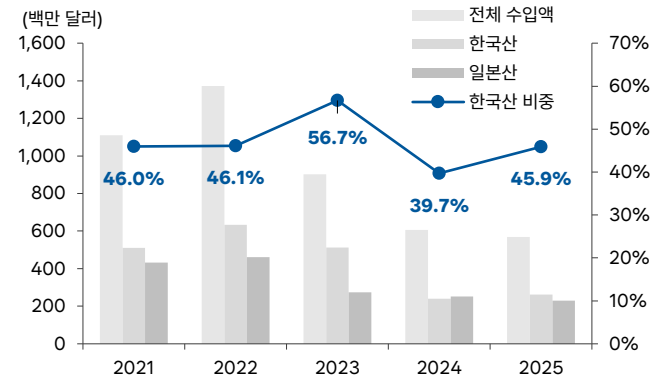
차지하며, 뒤를 이어 캐나다산 25.8%, 프랑스 9.1%, 영국 6.9% 등 4개국 수입비중이 92%를 상회한다.

미국 25마력 이하 트랙터 국가별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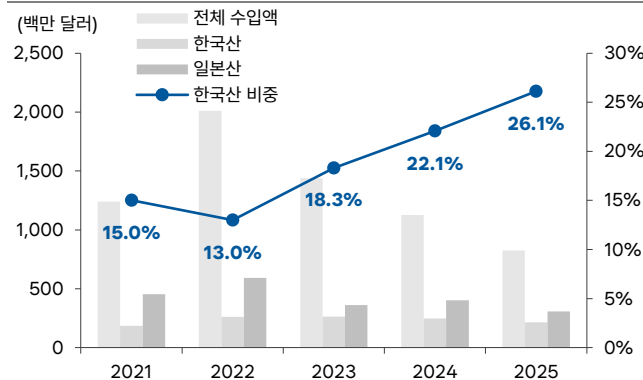
자료: USI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25~50마력 트랙터 국가별 수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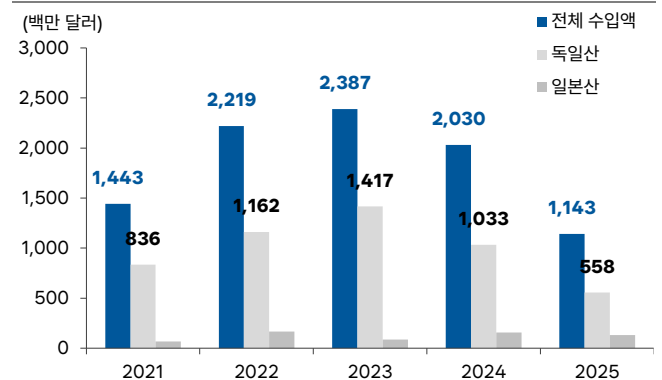
자료: USI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50~100마력 트랙터 국가별 수입액 추이



자료: USI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미국 100~175마력 트랙터 국가별 수입액 추이



자료: USITC,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유럽 매출액은 2016년 266억
원에서 2025년 2,200억 원으로
CAGR 26.5%로 고성장세,
2028년까지 연매출 5,000억 원
달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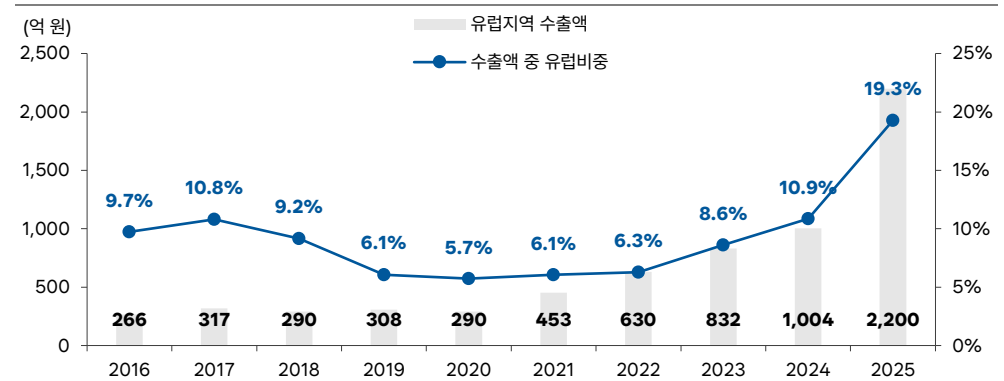
동사는 북미지역에 75% 이상 편중된 수출 구조를 유럽 시장으로 매출을 확대하며 수출지역 다변화에 나섰다. 동사의 유럽 매출액은 2016년 266억 원 수준에서 2021년 453억 원, 2024년 1,004억 원(매출비중 7.1%)으로 꾸준히 늘어난데 이어, 2025년에는 2,200억 원으로 급증하며 전체 매출 비중의 14.8%를 차지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26.5%로 동기간 북미지역 CAGR 18.8%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성이 더 높았다. 2025년에만 유럽 매출이 2배 이상 급증하며, 동기간 거의 30%나 급감한 내수 매출 감소분을 상당 부분 상쇄하였다. 특히 2026년 상반기에도 내수 매출액이 전년도기대비 7.2%나 감소하고, 북미 매출액이 2.1% 증가에 그치며 성장 정책을 보인 상황에서도, 유럽 매출은 832억 원으로 전년도기(399억 원)대비 108.3%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지역 다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동사는 유럽시장에서 독일을 거점으로 70여개 딜러사를 확보하며 중대형 트랙터 시장 M/S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유럽지역 매출액을 3.5억 유로(5,00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지역에서만 향후 3년간 연평균성장률(CAGR) 31.5%에 달하는 고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가치제고 계획에 따르면, 동사는 독일 거점을 중심으로 딜러망을 2026년 635개소에서 2030년 900개소까지 확

충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유럽 매출을 2024년 약 1,400억 원(1억 유로)에서 2028년 약 5,000억 원(3.5억 유로)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유럽 농기계 시장은 연평균 5.0% 성장이 전망되는 거대 시장으로, 동사의 지역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글로벌 매출 안정성과 외형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전망이다.

대동 유럽지역 수출액 추이



자료: 대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신규 출시한 140마력대 대형 AI 트랙터(HX 시리즈)로 제품믹스를 다변화하여 북미 및 유럽시장 공략

수출 권역 확대와 더불어 추진 중인 '중대형 트랙터 라인업 강화'는 동사의 믹스 개선 및 수익성 정상화의 핵심 열쇠다. 기존 주력 시장이었던 북미의 경우 중소형 트랙터 비중이 80%에 달해 마진 방어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롭게 공략하는 유럽 시장은 60마력 이상 중대형 세그먼트가 전체 수요의 72%를 차지하는 고부가 시장이다.

동사는 올해 4월 국내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이 가능한 AI 트랙터(HX Series AI)를 출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9월 1일 대동의 AI 트랙터(HX 1400-AI)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공식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사가 개발한 AI 트랙터는 눈이 달린, 즉 비전 AI 기반 레벨4 자율주행 트랙터 플랫폼이다. 트랙터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와 AI 프로세스가 사람의 눈과 뇌 역할을 담당하여 경작지 상태, 장착된 작업기, 필드 장애물 등을 스스로 인식하고 분석한다. 기존에도 자율주행 트랙터는 존재했으나, 주로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정해진 경로만을 주행했으나, AI 트랙터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이 가능하다. 동사는 또한 테슬라 전기차나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무선 업데이트 기술을 AI 트랙터에 적용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술도 도입하였다. 농민들은 대리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된 AI 모델과 기능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새로운 트랙터를 사지 않아도 언제나 최신형 모델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동사는 140마력 이상의 차세대 대형 신모델(HX 시리즈) 런칭과 텔레매틱스(TMS) 기반 스마트 솔루션을 결합해 유럽 및 북미의 100마력 이상 중대형 트랙터 시장 침투율을 높이고 있다. 고마력 트랙터는 대당 평가(ASP)가 높고 마진 구조가 우수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통상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기제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100마력 이하 '북미 중소형 중심'에서 '유럽·북미를 아우르는 100마력 이상 중대형 라인업'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제품 믹스 고도화에 따른 수익성 레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대동 AI 트랙터의 주요 기능

 A-MOTION 스마트 자율작업 국내 최초 3레벨(직진, 선회) 자율주행	 AI 비전기반 AI자율작업	 앱으로 작업 앱하나로 여러 대의 트랙터를 동시에 제어/관리	 ISOBUS 스마트 작업기 연결로 정밀농업 지원	 OTA 원격 업데이트로 매일 최신 기능 사용
 142 HP 강력한 파워 (HX1400)	 3.8L 디젤엔진 국내 농기계업체 최초 개발엔진 탑재	 3,852Kgf 최강의 승강력 (HX1400)	 230ℓ 국내 최대 용량 연료탱크 (HX1400)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 HX 시리즈 AI: 국내 최초 AI 트랙터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 NEW HX 시리즈: 국내 최대 142마력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와 로보틱스 기반 미래 농업 플랫폼기업으로 도약 기대

단순 농기계 제조기업에서 농업 피지컬 AI 및 자율작업 플랫폼 기업으로 구조적 전환 추진

동사는 국내 농기계 1위 및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중소형(100마력 이하) 트랙터 시장 점유율 3위의 견고한 제조·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단순 농기계 조립·판매 기업에서 ‘농업 Physical AI 및 자율작업 플랫폼 기업’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동그룹은 지난 해 라스베이거스 CES 2025에 국내 업계 최초로 참가하여 전시부스를 열고 AI 기반 다기능 농업로봇, 정밀농업, AI 식물재배기 등 농업 로봇업체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동사는 2022년부터 그룹의 AI 로봇 대전환을 추진하는 핵심기업인 ‘대동에이아리랩(AI Lab)’, ‘대동로보틱스’, ‘대동애그테크’ 등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여 온디바이스 AI, AI 의사결정 에이전트, 농용 로봇 및 정밀농업 솔루션을 수직 계열화하였다. 이는 글로벌 1위 기업인 존디어(John Deere)가 자율주행과 정밀농업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구조적 멀티플리레이팅을 달성했던 경로와 유사하며, 동사 역시 전통 기계 제조업의 밸류에이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의 핵심은 ‘Physical AI 성장플라이휠’을 통한 선순환 가동이다. 동사는 ① AI 트랙터, 방제·수

확 필드로봇 등 첨단 하드웨어 보급 확대를 통해, ② 현장의 작물·토양·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③ 이를 AI 엔진에 피드백하여 자율성과 수확 예측 정밀도를 고도화하며, ④ 궁극적으로 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투입 비용·노동력 절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운영 성과는 ⑤ 솔루션 구독 및 RaaS(Robot-as-a-Service) 등 고마진 서비스 매출 확대로 이어져 고객 락인(Lock-in) 효과를 극대화한다. 실제로 정밀농업 서비스 적용 면적은 2026년 1,785ha에서 2030년 14.7만ha로 80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며, 로봇틱스 부문 매출 또한 2026년 100억 원에서 2030년 1,100억 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그룹, GS건설, 나우IB
등으로부터 시리즈A 투자 50억
원 유치하며 AI 필드로봇 사업
본격화**

대동로봇틱스는 지난 7월 GS건설 계열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포스코홀딩스 계열 포스코기술투자, 나우IB캐피탈이 참여한 시리즈A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AI 필드로봇(Field Robot)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번 투자는 대동그룹이 보유한 AI 필드로봇 기술, 즉 비정형 환경에 특화된 AI 필드로봇 기술을 건설 및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동로봇틱스는 지난 6월 GS건설과 '건설현장 자동화 및 스마트 건설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포스코 기술투자는 대동그룹이 고도화하고 있는 '실내외 복합 자율주행' 기술에 주목한다.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 기술이 농업 현장을 넘어 건설/제조/물류업종 등 다양한 대규모 제조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레인보우로봇틱스와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애그로이드'
공동 개발 MOU 체결**

동사의 연결 자회사인 대동모빌리티는 전기스쿠터와 골프카트, 가드닝 모빌리티 등 전동화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대동그룹의 로봇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대동로봇틱스를 통해 농업용 운반로봇을 비롯한 필드로봇 사업도 확대하는 등 대동그룹이 AI 로봇틱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계열사이다. 대동그룹은 지난 8월 레인보우로봇틱스와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인 '애그로이드'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애그로이드는 온실을 자율주행하는 하부구동체와 양팔형 휴머노이드 상체를 결합한 로봇으로 작물 상태 점검과 불필요한 잎 제거, 수확, 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사가 2025 CES에서 선보인 딸기 수확로봇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다. MOU 협약에 따라 대동은 애그로이드 개발을 총괄하게 되며, 대동로봇틱스와 대동애그테크는 자율주행 하부 플랫폼, 작업 경로 생성, 작물 인지 및 수확 판단 등 농작업 AI 시스템 개발을 맡는다. 대동그룹은 현재 레인보우로봇틱스의 휴머노이드 상체와 자체 개발한 하부 구동체를 결합해 1차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고, 이를 토마토 수확 등 실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대동그룹은 정부의 '국가 농업AX플랫폼' 사업의 '전남광주시 컨소시엄'의 대표 주관기업으로 2028년까지 전남 무안에 조성될 '4세대 AI 온실'에 애그로이드를 핵심 로봇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대동그룹-레인보우로보틱스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공동 개발 MOU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로보틱스 운반로봇 RT100: 애그로이드의 하부 구동체



자료: 대동로보틱스,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I 농기계, 필드로봇, 정밀농업, 스마트팜 등으로 대변되는 미래 신사업(New Biz) 부문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CAGR) 39.4%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11.9%에 불과했던 New Biz 매출 비중은 2030년 25.9%까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고부가가치 솔루션 믹스 개선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통합 패키지 판매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연결 영업이익은 2025년 312억 원(OPM 2.1%)에서 2030년 3,790억 원(OPM 10.6%)으로 12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연결 매출 3.59조 원(CAGR +19.3%), ROE 20% 달성이라는 명확한 5개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VISION 2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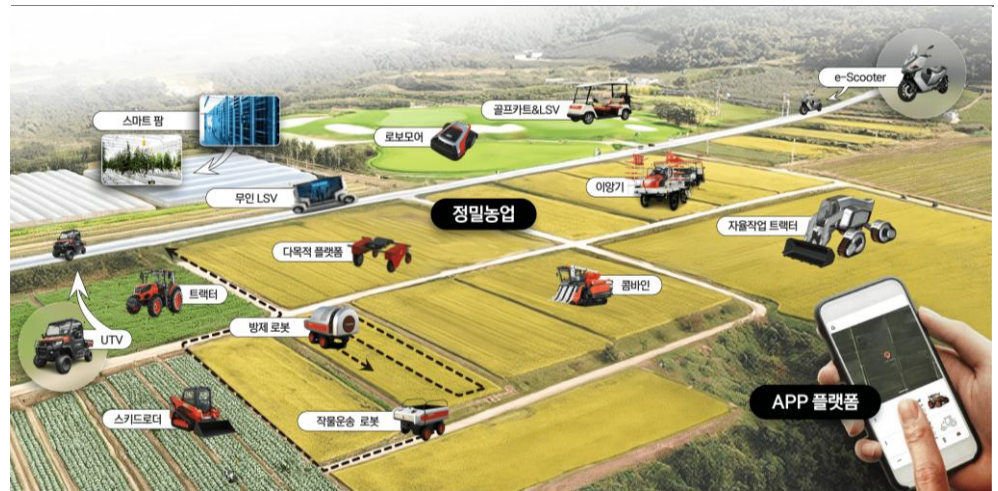
농업 Physical AI로 글로벌 농업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기업



	2026	2028	2030
정밀농업 면적	1,785 ha	3.7만 ha	14.7만 ha
스마트팜 면적	10 ha	30 ha	50 ha
로보틱스 매출	100억	500억	1,100억
복미 달러	671개소	901개소	1,100개소
유럽 달러	635개소	775개소	900개소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이 꿈꾸는 미래 농업 청사진



자료: 대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30 Vision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존디어 사례에서 답을 찾다

기업가치제고 계획으로

Vision 2030 및 주주환원 목표 발표

동사는 국내 농기계 1위이자 북미 100마력 이하 중소형 트랙터 시장 3위라는 견고한 입지를 구축한 대표적인 수출형 농기계 제조사로,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글로벌 시장에서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의 기업가치는 PBR 0.5배 수준으로 이는 내수 시장의 저성장 국면과 글로벌, 특히 북미시장의 단기적 수요 둔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글로벌 경쟁사 대비 크게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동사가 발표한 '2030 Vision'을 담은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전통 농기계 제조사를 넘어 '농업 Physical AI'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회사는 정밀농업, 온디바이스 AI 트랙터, 농용 로봇 등 첨단 하드웨어와 AI 운영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여, 2025년 기준 1.48조 원인 연결 매출액을 2030년 3.59조 원(CAGR 19.3%)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주가치 제고의 핵심 지표로 ROE 20%, PBR 2.0배, PER 10.0배를 명시하며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의 대대적인 정상화를 선언하였다.

존디어의 사업 구조에서 확인

가능한 기업가치 밸류업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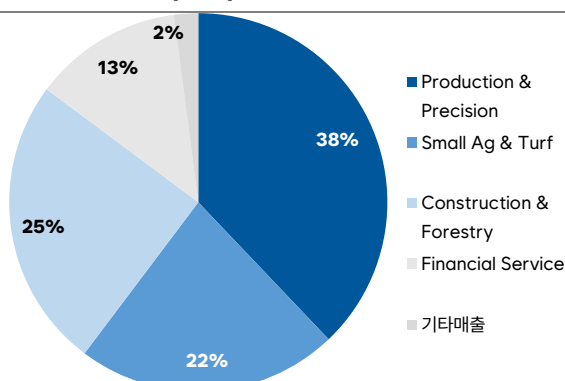
이러한 목표 설정은 글로벌 1위 농기계 업체인 미국 존디어(Deere & Company)의 성공적인 밸류에이션 재평가 경로와 궤적이 유사하다. 존디어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상용화하고 정밀농업(Precision Ag) 및 AI 기반 SaaS 구독형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통 제조업 밸류에이션의 한계를 뚫고 현 추가 기준 PBR 6.5배 이상의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대동 역시 단순 완제품 조립·판매업에서 탈피해 하드웨어와 AI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존디어와 같은 멀티플 리레이팅(Re-rating)의 궤적을 밟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동사의 PBR 2.0배 목표는 설득력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동사와 존디어의 사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두 기업간의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구조적 우위와 수익성 차별화 요인이 명확하다. 존디어의 2025년 매출비율을 보면 100마력 이상의 대형 농기계와 정밀농업을 아우르는 Production & Precision이 주력 사업부문으로 전체 연결 매출의 38%, 영업이익의 44.4%를 차지하며, 영업이익률은 15.4%를 기록하며 전사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견인하였다. 여기에 동사의 주력 세그먼트인 소형 농기계 및 잔디관리

(Small Ag & Turf) 사업부문은 매출비중 22%, 영업이익 기여비중 20%, 건설 및 임업장비를 포함하는 Construction & Forestry 매출비중은 25%, 영업이익기여비중은 17%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Financial Services는 당사는 영위하지 않는 사업부문으로 자체 금융자회사를 통해 장비 판매와 할부, 리스금융을 패키지로 묶어 전체 연결 매출의 13%, 이익기여의 18.5%를 사업부문 중 가장 높은 고마진(19.1%)으로 창출하는 강력한 라인(Lock-in)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대동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트랙터 및 소형 건설장비(CCE) 라인업을 확장하며 제품믹스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형 농기계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집중되어 있다. 아직은 동사가 존디어처럼 대규모 자본을 직접 다루는 자체 종합 금융 자회사나 건설, 임업 기계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다각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동사가 미래 신사업으로 추진중인 정밀농업은 존디어의 성공사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존디어의 사업에서 Production & Precision 부문이 15%를 상회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창출하는 배경에는 자율주행,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정밀 제어 장치 등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이며, 단순 장비 판매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기반의 반복 매출 구조가 핵심이다. 동사 역시 AI 트랙터 및 정밀농업서비스, 커넥티드 플랫폼 기반의 부품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정밀농업의 매출비중과 전사 이익기여비중이 아직은 글로벌 선도기업과 격차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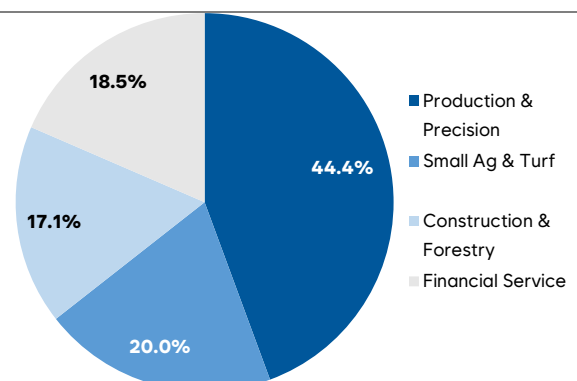
요약하면, 존디어의 2025년 전사 이익기여의 44.4%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부문은 대형 농기계와 정밀농업을 포함하는 Production & Precision 부문으로 영업이익률이 15.4%에 이르며, 이와 더불어 금융 사업의 영업이익률은 19.1%로 사업부문 중 수익성이 가장 높다. 특히 자체 금융사업은 전사 이익기여비중의 18.5%를 차지했으며, 금리인상이나 업황 사이클 하락 구간에서도 금융자회사의 실적기여와 리스 수익으로 실적 변동성을 완충해 전사 마진 방어 가능했다. 동사의 경우는 별도의 금융 자회사 없이 제품 판매와 딜러 네트워크 중심의 영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결국 동사의 경우에도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방향성은 현재의 중소형 위주 제품군을 중대형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단순 농기계 공급에서 AI 트랙터, 농용 로봇, 온디바이스 AI 등 농업 로보틱스(피지컬 AI)에 정밀농업, 스마트팜, 필드 Raas 운영 등 AI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탑재한 혁신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존디어 사업부문별 매출비중(2025)



자료: Deere & Company,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존디어 사업부문별 이익기여 비중



자료: Deere & Company,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30년까지 AI 농기계, 로보틱스, 스마트팜 등 New Biz 사업 매출비중을 25.9%로 확대

동사는 구체적인 기업가치제고 실행 방안으로 2030년까지 기존 캐시카우인 트랙터 등 전통 사업(Legacy Biz)의 안정적인 성장(CAGR 15.3%)을 바탕으로, AI 농기계·로보틱스·스마트팜 등 신사업(New Biz)을 연평균 39.4%(CAGR)로 가속 성장시켜 전체 매출 내 신사업 비중을 2025년 11.9%에서 2030년 25.9%로 확대할 계획이다.

로보틱스 매출액은 2026년 1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1,100억 원으로 10배 이상 성장시킬 계획이다. 향후 4년간 로

보틱스 부문의 CAGR은 무려 82%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정밀농업 면적은 2026년 1,785ha에서 2028년까지 3.7만ha, 2030년까지 14.7만ha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미 딜러망을 2026년 671개소에서 2030년 1,100개소로, 유럽 딜러망을 635개소에서 900개소로 대폭 확충하여 글로벌 채널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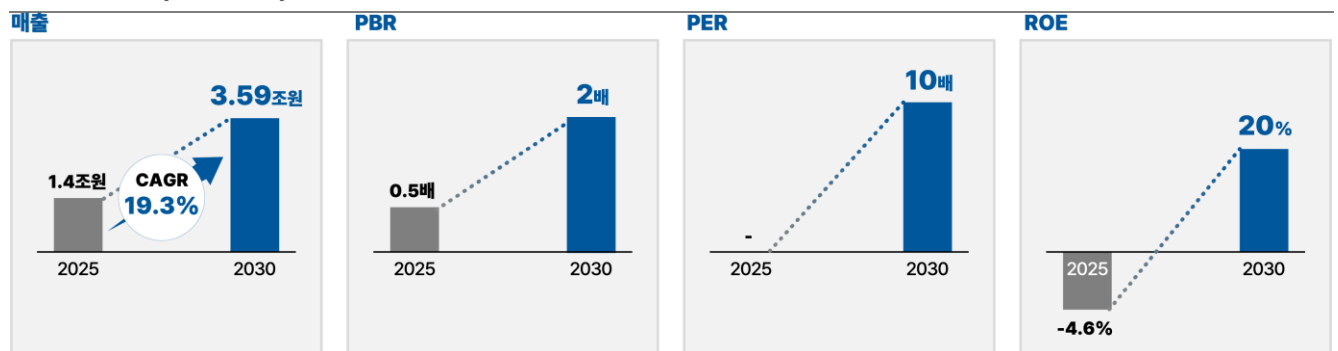
FCF 50% 한도 내 배당성향은 20%까지 점진적 확대

주주환원 계획으로는 향후 당기순이익의 20% 수준까지 배당성향을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FCF의 50%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창출된 순이익은 주주환원 배당 20%, 성과급 30%, 미래 성장 CAPEX 50%로 명확히 배분하여 기업 성장과 주주가치의 선순환을 추구할 계획이다.

ROE 20%, PBR 2.0배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도전적인 목표이나, 미래농업 플랫폼기업으로 변화가 본격화되면 도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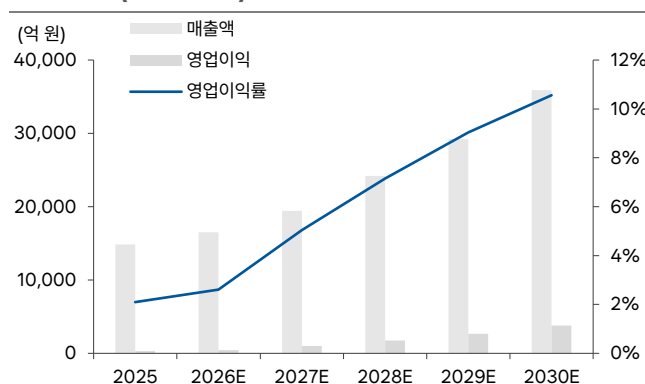
동사의 기업가치제고 계획 발표는 업황 둔화와 저평가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5개년간 명확한 지향점과 세부 전략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현재의 마이너스 ROE 및 0.5배 수준의 PBR, 그리고 하드웨어 제조업 특유의 자본 집약적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목표치(ROE 20%, PBR 2.0배)는 회사의 체질이 완전히 미래 농업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될 때 도달 가능한 도전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기업가치의 지속적인 재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향후 동사가 추진 중인 로봇틱스 및 스마트 솔루션 부문의 실질적인 매출 가시화, 하반기 비수기 실적의 안정적 방어, 그리고 비핵심 자산 효율화를 통한 차입금 상환 등 재무 건전성 개선 여부가 핵심 관련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가치 제고 목표(2030 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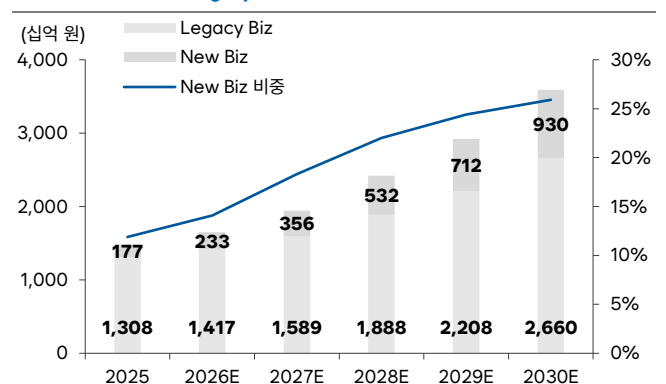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미래 사업계획(2030 Vision)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사업영역별 매출 목표: Legacy Biz CAGR 15.3% & New Biz CAGR 39.4%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6년 상반기 실적 분석

**1H26 매출액 8,448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판관비용 증가 영향으로
473억 원(YoY +0.9%) 기록**

동사의 2026년 상반기 누적 연결 실적은 매출액 8,448억 원(YoY +5.4%), 영업이익 473억 원(YoY +0.9%)을 기록하였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북미 트랙터 시장의 수요 둔화 등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도, 환율 상승 효과와 유럽 및 기타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 고마진 제품 비중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2분기 단독 연결 매출액은 4,67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하며 분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2분기 영업이익은 412억 원으로 전년동기(251억 원)대비 64.1%나 급증하며 2022년 2분기 코로나 반짝 특수 이후 4년만에 분기 최대치를 경신하였다.

상반기 누적 매출총이익은 2,123억 원(YoY +9.5%)으로 매출총이익률(GPM)이 25.1%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24.2%) 대비 0.9%p 개선되었다. 이는 고부가 중대형 트랙터 믹스 개선과 전사적 원가 절감 활동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판관비는 해외 직영 및 광역 거점 확대, 물류 인프라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1,651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률(OPM)은 5.6%를 달성하며 전년 동기 수준(5.8%)의 수익성을 방어하였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82억 원(YoY -22.7%), 당기순이익은 153억 원(YoY -4.0%), 지배주주순이익은 249억 원(YoY -4.5%)을 시현하였다.

내수 부진에도 수출이 성장 견인

연결 기준 사업부문별로 보면 농기계 부문 매출액이 7,25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농기계 내수 매출액은 1,551억 원으로 5.7%(-94억 원) 감소했으나, 농기계 수출액은 5,701억 원으로 7.8%(+411억 원) 증가해 외형 성장을 견인하였다. 상반기 주물 부문 매출액은 1,08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였으며, 기타사업 상반기 매출액은 105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같았다.

연결 매출액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해 보면 성장의 견인차는 수출 부문이다. 상반기 연결 기준 내수 매출액은 2,71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212억 원) 감소했으나, 수출 매출액은 5,73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7%(+646억 원) 증가하며 내수 매출 감소를 상쇄하고 성장을 견인하였다. 이에 따라 상반기 연결 기준 수출비중은 67.8%로 전년동기 대비 4.3%p 상승하였다.

상반기 북미법인 성장세 둔화, 중대형 트랙터 위주 유럽 판로 확장으로 유럽지역이 수출 견인

상반기 수출 실적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그동안 고성장세를 견인한 미주 매출액은 4,53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이는 북미의 농기계 수요 위축으로 대부분 두자리대 성장률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는 경쟁사들 대비로는 매우 견조한 실적이다.

미국 매출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한 지역은 유럽이다. 상반기 유럽 매출액은 83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8.3%나 급증하였으며, 이는 동사가 50마력 미만 중소형 트랙터 위주의 북미에서 중대형 트랙터 위주의 유럽지역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미국과 유럽 이외 기타지역 매출액은 365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5% 증가해 기존 북미 위주의 수출 판로가 유럽 및 기타지역으로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하다.

전사 실적을 견인한 종속기업은 미국법인

상반기 실적을 별도법인과 연결 자회사로 구분해 보면, 별도 법인의 상반기 매출액은 4,387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28억 원으로 전년동기(207억 원)대비 86.4%나 급감하였다.

연결 종속기업 중에 별도 부문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 전사 실적을 견인한 건 대동 USA 법인이다. 연결 조정 전 대동

미주법인(DAEDONG-USA)의 상반기 매출액은 3,85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462억 원으로 전년동기(300억 원) 대비 54.0%나 급증하며 전사 실적을 거의 대부분 견인하였다.

연결 조정 전 대동 유럽법인(DAEDONG KIOTI EUROPE)의 상반기 매출액은 74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했으나, 유통 판매망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48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하여, 외형 부문에서는 실적에 크게 기여했으나, 아직 이익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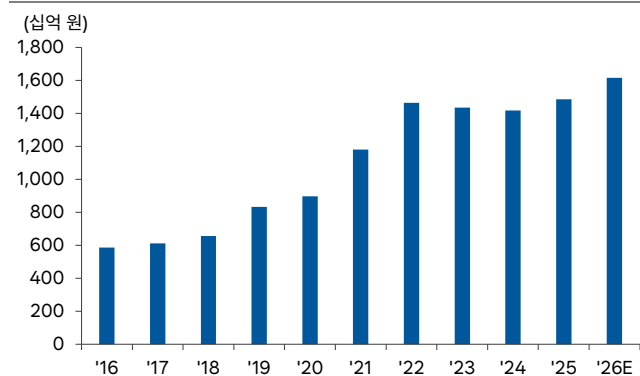
**미래 농업과 관련한 New Biz인
대동모빌리티, 대동에그테크,
제주대동 등 자회사들은 아직은
실적 기여도가 미미한 상황**

기타 종속기업 중에서 매출 규모가 1,000억 원대 이상으로 큰 기업은 대동기어와 대동모빌리티이다.

대동기어의 연결 조정 전 매출액은 1,26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억 원 수준으로 전사 실적 기여도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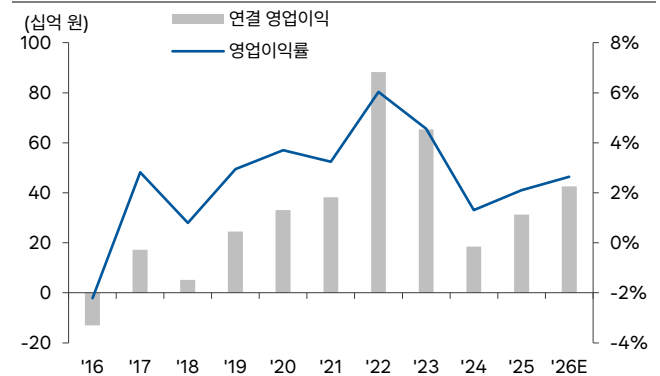
동기간 대동모빌리티 매출액은 1,159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33억 원으로 적자가 확대되었다. 모빌리티사업 매출액은 12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2.4% 급증하였으나,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캐시카우 가드닝사업 매출이 93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감소하고, 체인사업 매출도 109억 원으로 15.8% 두 자리대 감소세를 보이면서 수익성도 부진했다. 그 밖에 대동금속, 대동에그테크, 제주대동, 하이드로텍 등 자회사 실적은 매출이 역성장하거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전사 실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연결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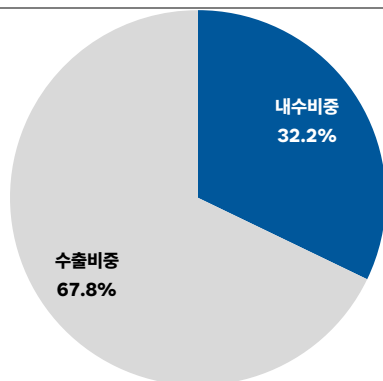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결 영업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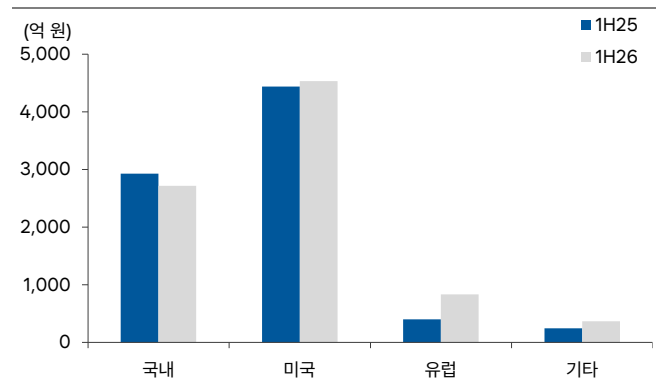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H26 매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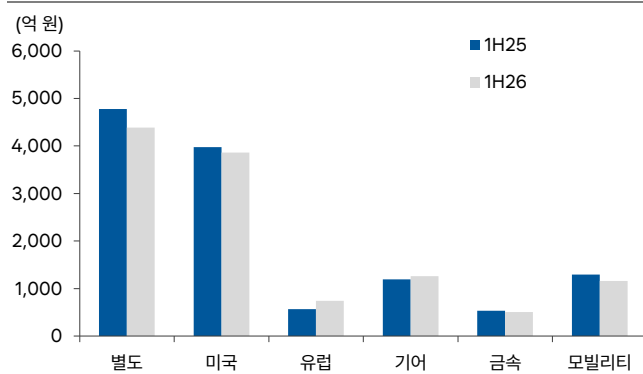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1H26 지역별 매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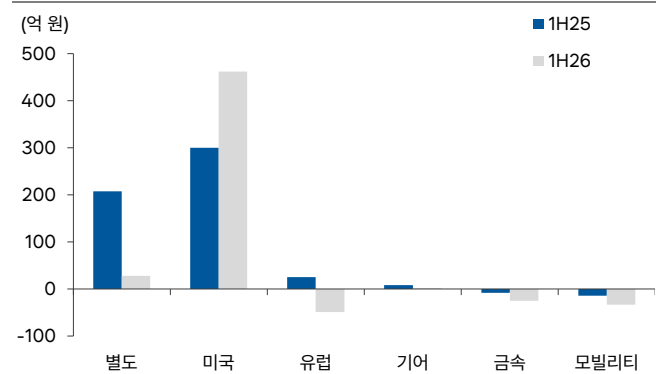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별도 & 종속기업별 반기 매출액 비교



자료: 대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별도 & 종속기업별 반기 영업이익 비교



자료: 대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연간 실적 전망

**2026년 매출액 1조 6,145억 원,
영업이익 425억 원 전망**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조 6,145억 원, 영업이익은 36.2% 증가한 4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률은 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0.5%p 상승한 2.6%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원가율이 2025년 77.3%에서 2026년 75.2%로 2.1%p 개선되면서 매출총이익이 4,006억 원(YoY +18.7%, GPM 24.8%)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판관비가 3,581억 원(YoY +16.9%, 판관비율 22.2%)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외형 증가에 따른 원가율 개선 효과가 이를 상쇄하며 영업이익 425억 원 및 EBITDA 997억 원(YoY +8.0%)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58억 원으로 전년(-299억 원)대비 적자폭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실적 전망

(단위: 억 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637	14,334	14,156	14,847	16,145
농기계	13,213	12,942	12,059	12,696	13,812
주물	1,305	1,163	1,931	1,927	2,104
기타	119	228	165	224	229
매출비중					
농기계	90.3	90.3	85.2	85.5	85.5
주물	8.9	8.1	13.6	13.0	13.0
기타	0.8	1.6	1.2	1.5	1.4
내수비중	31.5	32.5	34.7	23.2	24.4
수출비중	68.5	67.5	65.3	76.8	75.6
지역별 매출					
국내	4,608	4,665	4,905	3,440	3,836
북미	8,322	7,763	7,522	8,647	9,905
유럽	630	832	1,004	2,200	1,754
기타	1,078	1,074	724	561	650
지역별 매출비중					
국내	31.5	32.5	34.7	23.2	23.8
북미	56.9	54.2	53.1	58.2	61.4
유럽	4.3	5.8	7.1	14.8	10.9
기타	7.4	7.5	5.1	3.8	4.0
영업이익	883	654	185	312	425
영업이익률	6.0	4.6	1.3	2.1	2.6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PBR 0.5배로 팬데믹 이후 최저치, 북미 중소형 트랙터 수요 둔화 및 내수 부진 반영

현주가는 2026년 추정 BPS대비 PBR 0.5배(ROE 2.8%)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동사의 주가는 연초 대비 13.9% 하락하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58.8% 급등한 것과 비교해 72.7%p 이상 수익률을 하회했다. 2022~2023년 북미 중심의 괄목할 만한 수출 호조와 두 자리대 ROE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국면에서 형성되었던 밸류에이션(PBR 1.0배 수준)과 비교했을 때, 현주가는 북미 중소형 트랙터 수요 둔화 및 재고 조정, 국내 농가 구매력 약화 우려가 선반영되며 자산가치 기준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여간 최저점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구조가 가장 유사한 피어는 TYM으로 PBR 0.6배 수준, 매출성장률과 수익성 측면에서 TYM이 비교 우위

국내 상장 농기계 업체 중 사업 포트폴리오와 매출 구조(북미 수출 중심)가 가장 유사한 기업은 TYM이다. 대동, TYM과 국내 TOP3를 형성하고 있는 LS엠트론은 (주)LS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으로 밸류에이션 비교가 어렵다. 2025년 기준 농기계 매출액을 보면 대동은 전체 연결 매출액 1조 4,847억 원 중 농기계 매출액이 1조 2,696억 원으로 가장 크며, TYM은 전체 연결 매출액 9,293억 원 중 농기계사업부 매출액은 8,493억 원으로 국내 2위업체이다. LS엠트론은 연결 매출액이 1조 554억 원을 기록하여 TYM 보다 전사 매출 규모는 크지만, 기계사업에 포함된 트랙터 매출액 규모는 5,658억 원으로 국내 3위권 업체이다.

TYM의 주가를 보면 연초대비 16.1% 상승하여 동기간 13.9% 하락한 동사에 비해 30.0%p 주가수익률이 높았으며, PBR은 0.6배 수준으로 동사에 비해 소폭 높긴 하나, 추정 ROE(14.1%)를 감안하면 동사(ROE 2.8%)대비 주가가 저평가 수준이다.

2025년 동사의 매출액성장률은 4.9%에 그친 반면, 동기간 TYM의 매출액성장률은 17.8%로 동사에 비해 높았다. TYM의 사업부문은 농기계, 필터, 기타로 구분되어 있으며, 농기계사업부만 보면 매출액이 2024년 7,087억 원에서 2025년 8,493억 원으로 19.8% 증가해 전사 외형 성장률보다 농기계사업부 성장률이 높았다.

양사의 매출액을 내수와 수출로 구분해보면, 동사는 수출 위주로 판로를 확대하며 수출액이 1조 1,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한 반면, 내수 매출액은 1,364억 원으로 전년대비 52.4% 급감하며 수출 판로 확대 기초 하에서 내수시장에서는 LS엠트론, TYM 대비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기간 TYM의 내수 매출액은 2,435억 원으로 전년대비 5.7% 감소한데 그쳐 동사대비 선방하였으며, 수출액은 6,858억 원으로 전년(5,305억 원)대비 29.3%나 급증하며 동사에 비해 수출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TYM의 미국 수출액은 6,007억 원으로 전년(4,428억 원) 대비 35.6%나 급증하며 동사의 미국지역 수출증가율(14.9%)를 두 배 이상 상회하였다. 전년대비 미국향 수출 증가금액을 보더라도 TYM은 전년대비 1,579억 원 증가하여 동기간 1,125억 원 증가한 동사 대비 수출에서도 동사보다 好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을 비교해보면 지난 해 이어 TYM은 실적 호조가 지속된 반면, 동사의 경우에는 외형 성장과 이익측면에서 개선세가 제한적이었다. TYM은 상반기 연결 매출액이 5,522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한 반면, 동사의 매출액은 8,448억 원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수익성을 보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TYM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626억 원으로 전년동기(394억 원)대비 58.9%나 급증한 반면, 동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473억 원으로 전년동기(468억 원)대비 0.9% 증가에 그쳤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TYM이 11.3%로 동기간 동사의 5.6%를 두 배 이상 상회하였다.

**동사는 미래 신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와 이자비용 부담으로
영업 외 수지 악화**

당기순이익으로 비교해보면 양사간의 수익성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진다. 상반기 TYM의 당기순이익은 56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229억 원)대비 147.5%나 급증하였으나, 동사의 당기순이익은 15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하였다. 매출액 규모는 동사가 TYM에 비해 1.5배나 크지만, 당기순이익 규모는 TYM이 오히려 동사에 비해 3.7배나 컸다. 동사의 경우 순차입금 규모가 상반기말 기준 1조 원대를 상회하며 이자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등 영업 외 수지가 악화되면서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동사의 상반기말 부채비율은 237.6%에 달했으나, TYM의 경우 부채비율이 92.0%로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영업 외 수지에서도 실적에 기여했다.

**글로벌 농기계 피어 주가는
리레이팅 국면,
농기계 제조사에서 AI 농기계,
로보틱스, 정밀농업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테크기업으로 주목**

글로벌 농기계 빅 플레이어들의 연초 이후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강력한 리레이팅(Re-rating)이 전개되고 있다. 글로벌 1위업체인 존디어(DE)는 글로벌 농업 로보틱스 및 정밀농업(Precision Ag) 생태계를 주도하며 연초 대비 49.2% 급등하여, PER 28.9배, PBR 6.5배라는 압도적인 밸류에이션으로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있다. 북미 지역 주요 기업인 CNH, KUBOTA, AGCO도 연초대비 주가가 각각 +50.1%, +38.5%, +20.6% 상승하는 등 글로벌 주요 농기계 피어들 역시 자율작업 기기 보급과 대형화 트렌드에 힘입어 일제히 20~50%대 수준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PBR 1.2~2.6배, PER 14~16배 수준으로 동사에 비해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다.

글로벌 피어 그룹 4개사(존디어, KUBOTA, CNH, AGCO)의 평균 PBR이 3.1배(존디어 제외 시 2.0배)에 달하는 가운데,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농기계 제조사'에서 '피지컬 AI 및 자율주행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흐름은 대동에게도 중장기적 리레이팅의 강력한 벤치마크가 된다. 동사 역시 국내 최초 3단계 자율주행 트랙터 상용화, 대동-KIRO 로보틱스센터를 통한 필드 로봇(추종형 운반 로봇, 방제 로봇 등) 라인업 구축,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확장 등 단순 하드웨어 조립사를 넘어선 스마트 모빌리티-에그테크(AgTech)로의 사업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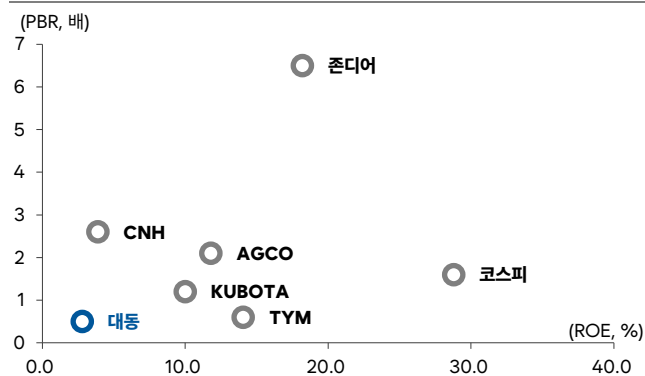
**기업가치제고계획 발표,
2030년까지 매출목표 3.59조
원으로 연평균 19.3% 달성,
ROE 20%, PBR 2.0배 목표**

주목해야 할 핵심 모멘텀은 동사가 올해 공식 발표한 2030 기업가치제고 계획이다. 동사는 밸류업을 통해 단순 농기계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를 축으로 농업의 미래 생산성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사 매출규모를 2025년 1.48조 원에서 2030년까지 3.59조 원까지 늘려 연평균(CAGR) 19.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트랙터 등 레거시(Legacy) 사업의 안정적 성장(CAGR 15.3%)에 더해 AI 농기계, 농업 로봇, 스마트파밍 등 'New Biz' 부문에서 연평균 39.4% 성장시켜 신사업 비중을 25.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성장목표를 통해 2030년까지 ROE 20%를 목표로 PBR 2.0배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동사는 또한 잉여현금흐름의 50% 한도 내에서 당기순이익의 20%까지 배당성향을 확대해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사업(New Biz)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글로벌
PEER대비 밸류에이션 괴리 축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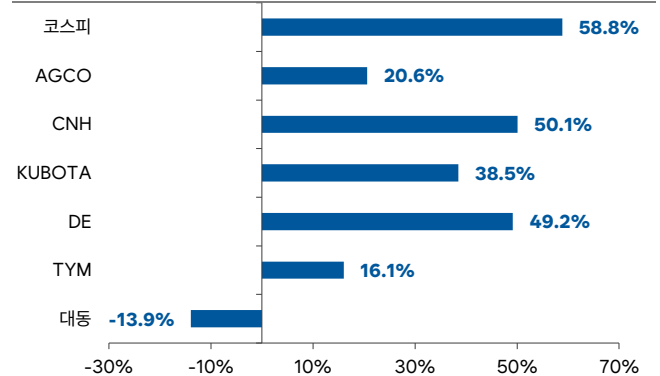
현재 동사의 주가는 글로벌 및 국내 증시 랠리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추가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다. 향후 북미에 이은 유럽지역으로의 판로 확장, AI 트랙터와 중대형 마력대 고부가 프리미엄 트랙터 침투율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로보틱스 투자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는 글로벌 동종업계와의 심각한 밸류에이션 괴리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동사는 국내 농기계 시장점유율 1위이자, 북미 중 소형 트랙터 시장에서 KUBOTA, 존디어에 이은 TOP3 기업으로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피어들의 리레이팅 궤적을 추종하는 방향으로 주가의 정상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농기계업체 ROE-PBR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농기계업체 연초대비 주가수익률 비교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eer Valuation Table

(단위: 억 원배/%)

		대동	TYM	Deere	AGCO	CNH	Kubota
시가총액		2,378	2,973	2,545,400	119,791	232,884	300,393
자산총계	2024	21,326	8,366	1,484,558	164,502	631,115	563,636
	2025	22,750	8,524	1,508,535	171,152	613,377	569,381
	2026E	24,520	9,234	740,965	159,734	331,022	557,352
자본총계(지배)	2024	4,317	4,080	315,890	55,019	112,470	231,996
	2025	4,848	4,226	369,320	61,321	110,918	240,693
	2026E	6,380	4,645	319,421	59,315	95,793	244,796
매출액	2024	14,156	7,888	694,763	158,956	270,371	271,757
	2025	14,847	9,294	645,938	143,387	257,348	287,071
	2026E	16,145	9,972	559,067	138,334	231,080	286,247
영업이익	2024	185	161	169,601	-3,459	50,637	28,438
	2025	312	641	133,303	10,770	38,698	25,244
	2026E	425	833	77,312	9,828	7,719	32,007
영업이익률	2024	1.3	2.0	18.9	8.6	8.4	10.5
	2025	2.1	6.9	15.5	6.7	3.6	8.8
	2026E	2.6	8.4	13.8	7.1	3.3	11.2
당기순이익(지배)	2024	-307	182	95,523	-5,790	16,983	20,762
	2025	-168	401	71,092	10,332	7,253	17,752
	2026E	138	624	65,972	5,441	7,430	23,661
PER	2024	N/A	10.9	15.8	N/A	11.5	9.3
	2025	N/A	7.0	25.0	10.7	22.6	13.6
	2026E	17.2	4.6	38.6	22.5	30.5	12.3
PBR	2024	0.6	0.5	4.8	1.9	1.9	0.9
	2025	0.6	0.6	4.8	1.8	1.5	1.0
	2026E	0.5	0.6	7.1	2.0	2.1	1.2
ROE(지배)	2024	-6.9	4.6	31.6	-11.6	15.9	10.1
	2025	-3.7	9.7	20.4	17.9	6.5	7.7
	2026E	2.8	14.1	20.7	9.2	7.8	9.7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Fnguide 9월 3일 기준, 100엔 = 871원, 달러 = 1,360원 적용

리스크 요인

1 북미 트랙터 시장의 성장 둔화

미주지역 M/S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 따른 파이낸싱 부담,
곡물가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
팬데믹시기 역기저 효과에 따른
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은 우려요인

북미 시장은 지난 해 기준 국내 농기계 수출액(13.7억 달러)의 75%를 차지해 1.4조 원대에 달하는 최대 수출 판로이다. 동사의 2025년 연결 기준 미주지역 매출액은 8,647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하며 북미시장에서 'Hobby Farm' 특수로 최대치 매출액을 기록했던 2022년 수치를 상회하는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미국 매출비중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9년 38.4%에서 2025년 58.2%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국내 수출통계와 미국의 수입통계, 미국 현지 농기계업체들의 실적을 분석해 보면 북미 농기계 시장은 팬데믹 시기 이후 금리 상승과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성장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농업용 트랙터 수출액은 2017년 4.98억 달러(5,634억 원)에서 2022년 12.45억 달러(1.6조 원)로 5개년간 CAGR 20.1%를 기록했으나, 이후로는 2023년 9.79억 달러(1.3조 원), 2024년 7.89억 달러(1.1조 원), 2025년 8.4억 달러(1.2조 원)로 감소하며, 최근 4년간은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국내 농기계 수출에서 트랙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하는데, 트랙터 수출의 미국비중이 74%를 차지하고, 또한 트랙터 기종 중에서도 특히 동사의 Volume Model인 25~50HP(마력)의 미국 수출비중이 82%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미국시장의 부진은 우려요인이다.

관세청의 수출통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트랙터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7% 감소했으며, 특히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25~50HP 모델은 1.49억 달러로 24.4%나 급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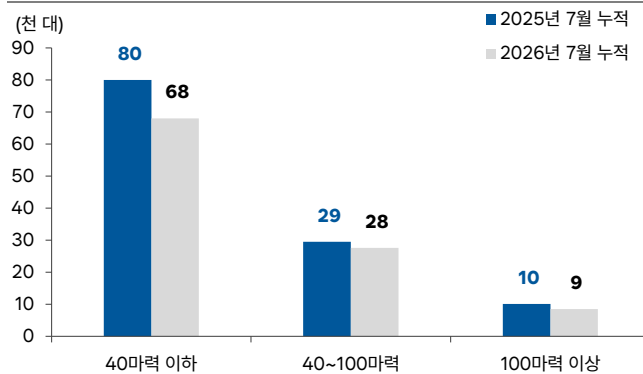
지난 2016년 이후 지난 해까지 10년간 연평균(CAGR) 18.8%의 고성장세를 기록했던 동사의 미국 매출액은 2026년 상반기 2.1% 성장에 그치며 미주시장의 수요 둔화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대형 트랙터로의 제품믹스 전환, 트랙터 가격인상과 환율 효과가 반영된 수치로 물량(Q) 기준으로는 수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미 현지에서 동사와 경쟁하는 글로벌 농기계 업체들의 판매 실적도 녹록지 않다. 글로벌 최대 농기계업체인 존디어(John Deere)의 북미지역 트랙터 판매대수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35만 대를 정점으로 4년 연속 감소하며 2025년 22.2만 대까지 감소하였다. 북미 중소형 트랙터시장 최대업체인 일본 KUBOTA의 북미 매출액도 지난 해 4.6% 감소하며 최근 3년간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북미지역의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AEM(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통계에 따르면, 2026년 7월 누적 40마력 이하 트랙터 판매량은 68,002대, 40~100마력은 27,627대, 100마력 이상은 8,513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5.1%, 6.3%, 15.5% 감소했으며, 전기종 합산 트랙터 판매량은 10.4만 대로 전년동기대비 12.9%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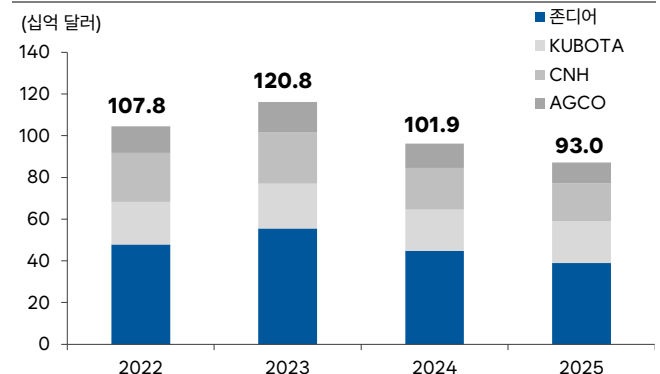
북미시장의 농기계 수요 위축 국면에도 불구하고 국내 업체들은 중대형 고부가 트랙터 판매 확대, 현지 유통 판매망 확대, 현지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라 미국의 50마력 이하 트랙터 수입시장에서는 25마력 이하 M/S 44.8%, 25~50마력 M/S 45.9%로 일본기업들을 제치고 우리나라는 미국 트랙터 시장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북미 농기계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은 동사의 외형 성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미국지역으로의 수출 편중이 75% 달하는 만큼 유럽 등 타지역으로의 수출 판로 확대가 중요하다.

미국 트랙터 기종별 판매 실적



자료: AEM(Association of Equipment Manufacturer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북미 주요 농기계 업체 합산 매출액 추이



자료: 업체별 실적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순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 가중

미래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수익화 국면 이전까지는
재무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

동사는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 로봇, 정밀농업 및 Smart Farming 등 미래 첨단 농업 솔루션 분야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해 왔다. 아울러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핵심 거점 내 직영 유통망 및 딜러 네트워크 강화 정책을 병행하면서 운전자본 부담과 시설·지분 투자가 동반 증가했다. 그러나 미래 사업의 본격적인 수익화 국면 진입에 앞서 선제적인 차입 조달이 선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 지표는 저하되고 있다.

순차입금 1조 원대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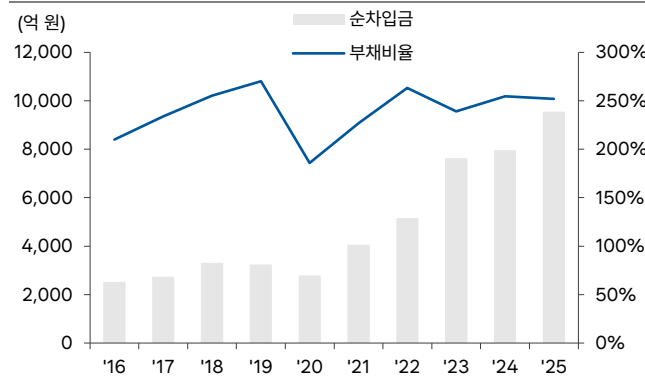
공격적인 자금 집행 기조로 인해 동사의 순차입금은 최근 1년간 18.6% 급증하며 1조 원대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 역시 1년 전 225.7%에서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37.6%로 11.9%p 상승하며 재무적 레버리지 부담이 심화되었다. 글로벌 농기계 전방 수요의 변동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가팔라진 차입금 증가 속도는 단기 유동성 관리 및 차입 구조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자비용 부담에 따른 영업외수지 및 순이익 훼손

차입금 증가와 고금리 환경은 금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84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연간 이자비용은 매년 증가해 2025년 568억 원까지 급증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79억 원의 이자비용이 계상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금융비용 지출은 본업에서 창출된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영업외손익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당기순이익 창출력을 훼손하는 핵심 병목 요인으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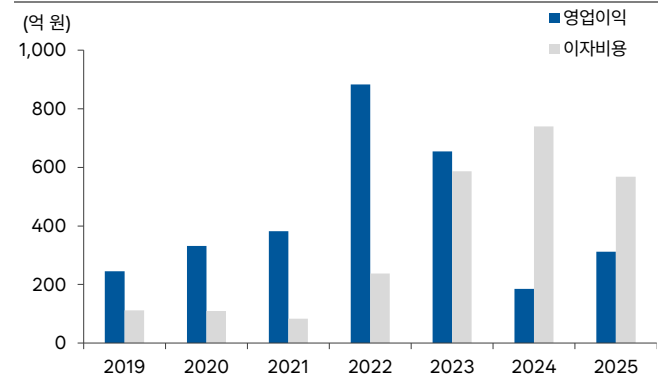
스마트 농업 및 로봇틱스 포트폴리오 전환이라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성은 중장기적으로 타당하나, 단기적으로는 미래 사업의 본격적인 수익화 시기까지는 실적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주요 리스크 요인이다. 향후 1)신사업 파이프라인의 실질적 매출 전환 시점, 2)해외 채널 안정화에 따른 재고자산 등 운전자본 회수 효율성, 3)자산 효율화 및 잉여현금흐름(FCF) 창출을 통한 디레버리징(차입금 축소) 가시성이 동사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대동 순차입금 & 부채비율 추이



자료: 대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대동 영업이익 & 이자비용 추이



자료: 업체별 실적 참조,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637	14,334	14,156	14,847	16,145
증가율(%)	24.1	-2.1	-1.2	4.9	8.7
매출원가	11,500	11,212	11,071	11,472	12,139
매출원가율(%)	78.6	78.2	78.2	77.3	75.2
매출총이익	3,137	3,122	3,085	3,375	4,006
매출이익률(%)	21.4	21.8	21.8	22.7	24.8
판매관리비	2,254	2,468	2,900	3,063	3,581
판매비율(%)	15.4	17.2	20.5	20.6	22.2
EBITDA	1,215	1,030	696	923	1,168
EBITDA 이익률(%)	8.3	7.2	4.9	6.2	7.2
증가율(%)	79.0	-15.3	-32.4	32.8	26.5
영업이익	883	654	185	312	425
영업이익률(%)	6.0	4.6	1.3	2.1	2.6
증가율(%)	131.1	-25.9	-71.8	69.2	36.2
영업외손익	-323	-419	-679	-634	-449
금융수익	283	616	209	436	365
금융비용	728	1,204	1,378	956	734
기타영업외손익	122	169	490	-114	-80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6	4	-3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576	239	-497	-322	-24
증가율(%)	38.5	-58.5	적전	적지	적지
법인세비용	191	120	-45	-23	34
계속사업이익	385	119	-451	-299	-5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85	119	-451	-299	-58
당기순이익률(%)	2.6	0.8	-3.2	-2.0	-0.4
증가율(%)	11.0	-69.0	적전	적지	적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86	176	-307	-168	138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810	-1,815	2,555	-567	363
당기순이익	385	119	-451	-299	-58
유형자산 상각비	304	346	454	539	667
무형자산 상각비	28	30	57	72	76
외환손익	196	65	96	62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277	-2,785	1,573	-1,659	-877
기타	554	410	826	718	555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226	-303	-710	-998	-74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8	0	0	0	-10
유형자산의 감소	2	317	13	59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101	-569	-475	-586	-780
기타	-109	-51	-248	-471	4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753	1,483	-1,911	1,515	433
차입금의 증가(감소)	1,245	1,869	-1,930	1,316	1,608
사채의증가(감소)	370	133	756	425	-500
자본의 증가	0	0	0	156	0
배당금	-17	-24	-26	-28	-27
기타	1,155	-495	-711	-354	-648
기타현금흐름	2	-7	48	25	31
현금의증가(감소)	719	-642	-19	-25	78
기초현금	567	1,285	643	625	600
기말현금	1,285	643	625	600	677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10,490	11,745	11,339	11,549	13,272
현금성자산	1,285	643	625	600	677
단기투자자산	138	206	136	267	288
매출채권	3,682	4,277	2,838	2,564	3,384
재고자산	5,002	6,387	7,284	7,492	8,241
기타유동자산	383	233	456	626	681
비유동자산	6,648	7,818	9,987	11,201	11,248
유형자산	6,052	6,901	8,446	9,373	9,486
무형자산	175	269	463	492	416
투자자산	326	439	206	282	292
기타비유동자산	95	209	872	1,054	1,054
자산총계	17,138	19,564	21,326	22,750	24,520
유동부채	9,253	11,102	11,012	11,592	13,808
단기차입금	4,505	6,102	4,964	6,399	7,899
매입채무	2,357	1,700	2,286	1,602	2,083
기타유동부채	2,391	3,300	3,762	3,591	3,826
비유동부채	3,165	2,691	4,303	4,693	4,332
사채	845	362	885	1,733	1,233
장기차입금	635	268	444	572	572
기타비유동부채	1,685	2,061	2,974	2,388	2,527
부채총계	12,418	13,793	15,314	16,285	18,140
자배주주지분	3,447	4,539	4,317	4,848	4,959
자본금	239	254	256	288	288
자본잉여금	180	408	455	784	784
자본조정 등	-640	-635	-654	-775	-77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948	1,625	1,677	2,163	2,163
이익잉여금	2,719	2,888	2,583	2,388	2,499
자본총계	4,720	5,771	6,012	6,465	6,380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8.3	24.8	N/A	N/A	16.9
P/B(배)	1.0	1.0	0.6	0.6	0.5
P/S(배)	0.2	0.3	0.2	0.2	0.1
EV/EBITDA(배)	8.5	12.6	18.7	16.2	13.3
배당수익률(%)	0.8	0.6	1.1	1.0	1.2
EPS(원)	1,555	685	-1,176	-640	480
BPS(원)	13,541	17,506	16,493	16,818	17,204
SPS(원)	59,113	55,975	54,091	56,398	56,007
DPS(원)	100	100	100	100	100
수익성(%)					
ROE	11.1	4.4	-6.9	-3.7	2.8
ROA	2.6	0.6	-2.2	-1.4	-0.2
ROIC	4.5	2.9	0.9	2.3	5.9
안정성(%)					
유동비율	113.4	105.8	103.0	99.6	96.1
부채비율	263.1	239.0	254.7	251.9	284.3
순차입금비율	127.0	129.3	149.4	166.5	183.7
이자보상배율	3.7	1.1	0.2	0.5	0.7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0	0.8	0.7	0.7	0.7
매출채권회전율	4.8	3.6	4.0	5.5	5.4
재고자산회전율	3.4	2.5	2.1	2.0	2.1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대동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9.09	대동 - 농기계 제조에서 농업 AI 플랫폼기업으로 도약 기대
2023.06.30	대동 - 국내를 넘어 미국에서 고성장 중인 농기계업체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